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받은 것만을 기뻐하며 만족하게 마시고 여러 고난 가운데 핍박받는 형제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9월 4일 (토) 제 1840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난민과 교회위해 금식/기도 하자!”

### BBC/FAI, 현재 아프간 난민탈출상황과 탈레반의 기독교인 박해현장 보도

탈레반이 미국 주도 연합군에 의해 축출된 지 20년 만에 국가를 재 장악하자 많은 이들이 아프가니스탄 탈출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인접국가에는 난민 220만 명이 있고, 아프간 국경 내에도 지속된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의 결과로 집을 떠난 350만 명 이상이 있는 상황이다. 난민의 전체 규모는 현재까지 불분명하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은 현재 아프간의 주요 국경 통과 지

점을 통제 중이며 아프간인들의 국외 이동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인 또는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한 사람만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대변인은 지난 20일 "아프간인 대다수는 정규 경로를 통해 국외로 나갈 수 없다"며 "현재까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탈출구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Afghanistan: Where will refugees go after Taliban takeover?).

현재 일부 아프간 난민은 해외로의 이동 방법을 찾아냈다. 수천 명의 아프간 주민들이 탈레반의 카불 점령 직후 파키스탄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1500명 가량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해 국경 근처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불에서는 현재 아프간 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공항으로 필수적인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자는 탈레반 점령 후 1만8000명 이상이 카불 국제공항을 통해 아프간을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간 국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프간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불안정과 갈등을 겪어왔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올해에만 탈레반의 카불 재장악 이전까지 내전으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이 55만 명에 달한다.

현재 아프간 내 실향민은 약 3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아프간 내 피란민과는 별도로 지난해 말 기준 약 220만 명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주변국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

아프간은 올해 국가 전역에

서 심각한 가뭄과 식량 부족 문제를 겪었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인 1400만



명이 굶주림을 겪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인접국인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지난해 아프간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유엔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150만 명이 파키스탄으로, 78만 명이 이란으로 몸을 피했다. 또 독일

13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있다. 이중 타국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받지 못한 망명 신청자만을 살펴보면 터키,

면, 탈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힌 국가도 있다. 한편 탈레반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본격화됐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하교회 사역을 펼치는 목사가 최근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현재 탈레반 무장 세력은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 각 가정을 이 잡듯 뒤지고 있다. 또 성경 앱 사용자를 체포하기 위해 개인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등 인권유린적인 탄압에 나서며 아프가니스탄 내 기독교인들을 공포로 몰아

놓고 있다. '팩스터 X'로만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지하교회의 한 목사가 오지 선교단체 '프런티어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Frontier Alliance International, FAI)에 직접 전한 현지 사정은 미디어에 알려진 내용보다 매우 절망적이다(URGENT UPDATE: GCM OFFERS NEW STATEMENT FROM AFGHANISTAN'S UNDERGROUND CHURCH).

현재 탈레반은 사살을 목적으로 기독교인 명단을 입수해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아프간인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 국가가 있는 반

면, 탈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힌 국가도 있다.

한편 탈레반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본격화됐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하교회 사역을 펼치는 목사가 최근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현재 탈레반 무장 세력은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 각 가정을 이 잡듯 뒤지고 있다. 또 성경 앱 사용자를 체포하기 위해 개인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등 인권유린적인 탄압에 나서며 아프가니스탄 내 기독교인들을 공포로 몰아

놓고 있다. '팩스터 X'로만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지하교회의 한 목사가 오지 선교단체 '프런티어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Frontier Alliance International, FAI)에 직접 전한 현지 사정은 미디어에 알려진 내용보다 매우 절망적이다(URGENT UPDATE: GCM OFFERS NEW STATEMENT FROM AFGHANISTAN'S UNDERGROUND CHURCH).

현재 탈레반은 사살을 목적으로 기독교인 명단을 입수해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아프간인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 국가가 있는 반



# “사람들은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행동 보고 변화된다!”

### 라이프웨이, 2000명 불신자 대상 설문 결과 보도

기독교인은 항상 비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16년 연구에서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는 2000명의 불신자 미국인에게 정확히 그 질문을 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처럼 행동하면 경청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Ways to Draw the Unchurched to Your Church).

## 행함 있는 믿음 볼 때 전도 가능성 높아

라이프웨이리서치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인의 47%는 누군가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소수(11%)만이 가능한 한 빨리 주제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적어도 한 명의 기독교인 친구가 있다고 말하는 불신자들 중 4

명 중 1명 미만(23%)은 기독교인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 거의 5명 중 4명(79%)은 친구가 자신의 믿음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3면 푸른초장 장덕상 목사



9면 동부개혁교회신학교 Th.M(설교학 전공) 개설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ifeway-usa.com | cjb@lifeway-usa.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지은이 김 덕 수 목사

한남대학교 사학과 (B.A.)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바이올라대학교 탈봇신학대학원 (M.A.)  
바이올라대학교 탈봇신학대학원 (D.Min.)  
하늘소망교회 담임  
'어? 성경이 읽어지네' LA 지부장

논문  
STRENGTHENING BIBLICAL INTERCESSORY PRAYER MINISTRY IN THE LOCAL CHURCH (지역교회 안에서 성경적 중보기도 사역강화 2019)

# The Way

(2월)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길을 타고 안내합니다. 그 길은 '역사'입니다. 성경 목록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치하여 성경에 흘러가는 드라마틱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스케치 합니다. 연속극이 재미있는 이유는 거기에 이야기가 흘러가고,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연속극보다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분이 드라마와 같이 흘러가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해되고, 그 이해됨을 통하여 성경이 읽어지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구입처: 미주내 각 기독교서점  
저자 연락처: dock.kim@biola.edu

발행인 칼럼

오늘도 밤잠을 설치는 이유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빨간색... 국화꽃은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 그 꽃들이 뿜어내는 짙은 향기는 '그속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벌써 9월, 가을이다.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국화꽃이 핀다. 이 시구도 생각한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시인은 새가 운다고 한다. 그렇다. 똑같은 새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새가 운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한다. 같은 장미꽃을 보고 "이게 뭐야? 꽃에 가시가 있구나...노릇"이라고 이마를 찡그리는 사람이 있고, "가시가 있는데도 이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다니...베리굿!"이라고 감탄하는 사람도 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을 갖게 되고 삶을 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없고"라는 관점으로 보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민20:5). 광야를 "없고"의 관점에서 보았다. 자신들의 정체성(Identity)을 "아무것도 없는 자"로 여겼고 결국 불평과 불만으로 불행하게 살았다. 그 똑같은 광야를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출19:4). 하나님의 관점에는 광야는 "없고"의 불행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업고" 다니시는 멋진 곳, 안전한 곳, 행복한 곳이라고 알려주신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사로 산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행복해하지 않았던가.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을 형들이 행한 나쁜 행동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땅에 미리 보내어 다가올 어려움을 준비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만일 요셉이 전자(前者)로 해석했다면 그 가정에는 피비린내가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후자(後者)로 해석하니 그 가정에는 용서와 행복의 꽃이 활짝 피었다.

"내가 미국에 왜 왔지?" 스스로 여러 차례 물었던 질문이다. 그대도 이민자라면 똑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내가 미국에 온 이유를 잘 해석해야 한다. 해석에 따라 나의 이민 생활은 사뭇 달라진다. 그 이유를 내가 성취하려고 했던 'American Dream'에서 찾으면 나의 한계와 이 땅의 상황 때문에 결국 좌절이 찾아온다. 나지막이 불리본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렇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American Dream'을 너머 'Kingdom Dream'을 꿈꾸게 하신다. 그런 관점으로 나를 보니 좌절은 없다. 나의 한계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움츠리지 않는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 미국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웅대하신 계획을 생각하니 오늘도 밤잠을 설치다.

거대 위험발생 때 개인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NPR, "취도 안 맞는 백신기피자 공통점 '종교와 정치 성향' " 보도

누구나 언제든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백신부국'인 미국. 하지만 백신이 부족한 국가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미국인이 백신 접종에 강력 반발하며 소송과 시위를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 중 최대 4분의 1 이상이 백신 기피자라는 추정까지 나온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백신 거부자의 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기업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백신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도 곧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방위적인 압박이 백신 기피자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지 미언론은 조심스런 관측을 하고 있다(Why Americans have grown more hesitant about the COVID-19 vaccine).

미국의 명문 주립대인 인디애나대, 코네티컷대, 매사추세츠대 등은 최근 학생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들 대학이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에게만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다. 백신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접종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주장이다.

조지메이슨대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직원에게 성과급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해당 대학의 법학과 교수는 소송을 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 있으며 감염 위험이 높은 병원 근로자마저 백신 접종 지침을 거부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과학계

상당수가 여전히 접종을 미룬 결과다.

일부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 음모론의 영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조사결과 백신 기피자에

대어인 폭스뉴스를 애청한다. 갤럽의 최근 조사결과 공화당 지지자 중 46%가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백신을 거부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은 지난 3월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가 오히려 복음주의자로부터 역공을 당하기도 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정치인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백신 관련 음모론을 전파해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백신 기피자가 계속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태도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백신을 맞은 근로자에게 현금 등 인센티브

백신의무화에 소송 잇달아... 백인 복음주의자가 가장 많이 기피 1905년 천연두 접종 판례... 법원은 기피자 편에 설 가능성 낮아

에서는 이런 현상을 '백신기피(vaccine hesitancy)'라고 부른다.

갤럽을 비롯한 미 여론조사 업체들은 미국인 중 14~26%가 앞으로도 영영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없는 '강경파'로 보고 있다. 백신이 넘쳐나는데도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정체에 빠진 이유가 이들에게 있다.

12일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집계한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률(1회 이상)은 71.5%다. 한 달여 전인 지난달 3일 접종률은 67%였다. 그동안 델타 변이가 미국을 강타했는데도 백신 기피자 중

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다. 바로 종교와 정치 성향이다.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MRI)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장 강력히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 집단은 개신교 복음주의를 믿는 백인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이 중 24%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3월 실시된 동일한 조사에서는 26%가 백신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델타 변이 확산에도 유지부동이다.

복음주의자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으로 꼽힌다. 이 중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고 보수 미

정치성향에 따라 과학에 대한 신뢰도 격차도 보였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자 중 79%가 과학을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45%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퓨리서치센터가 2017년 조사한 결과 백인 복음주의자 중 22%가 어린이에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을 하는 데 반대하는 등 백신 불신의 뿌리가 깊었다.

정치성향과 종교, 과학에 대한 신뢰 문제가 얽히면서 백신 기피자의 태도를 바꾸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를 주겠다는 '당근'을 꺼낸 기업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 압력을 넣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업이 급작스럽게 당근을 줄이고 채찍을 꺼내들었다"고 했다.

미 기업은 백신 접종 의무화와 함께 사무실 복귀시기를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은 직원의 사무실 복귀 시점을 내년 1월로 미룬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직원에게 사무실 출근 전 백신을 맞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offering various services.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a dental clinic offering various services.



Advertisement for Jenny Rae Le Roux for Governor 2021, listing her qualifications and campaign promises.

### 난민과 교회위해 ...

(1면에서 계속)  
인근 국가 국경은 이미 봉쇄돼 개인 항공편 없이는 탈출은 불가능하다. 목숨을 지키려는 기독교인은 하나님만 의지한 채 현재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지만 열악한 기후조건과 식량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를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 소식을 알리는 비영리 기독교 매체 SAT-7에 의하면

(SAT-7 CALLS FOR PRAYER AS AFGHAN CHRISTIANS FEAR THE FUTURE), 탈레반은 개인 스마트폰을 검색해 성경 앱 등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면 스마트폰 소지자를 즉시 사살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기독교 탄압을 자행 중이다.  
지하교회 관련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조엘 리처드슨 목사는 탈레반이 시골 지역에서 저지르고 있는 무자비한 탄압 소식을 알렸다. 현재 탈레반은 의



만 시골 지역 가정을 뒤지며 기독교 가정을 찾아내고 있으며 만약 기독교인 가정으로 밝혀질 경우 10대 소녀 등 어린 여성들을

끌고 탈레반 대원들에게 전리품처럼 넘겨주고 있다고 한다.  
(4면으로 계속)

### “사람들은 우리 말이...”

(1면에서 계속)  
그저 불신자들은 이미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열려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크리스천”처럼 살아간다면 더욱 더 우리가 믿는 신앙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말을 듣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불신자들이 말한 것이 있다:  
“나는 그들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의 32%는 기독교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대면에서든 온라인으로든 불신자들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들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

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31%는 기독교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들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저는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 더 행복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은 없지만 불신자들의 4분의 1(26%)은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쁨이 태도와 감정에 반영되는 것을 본다면 더 많이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이 믿음 때문에 불의에 맞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학대와 불공정에 직면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인 4명 중 1명(24%)에 따르면 공적인 정의 문제에 개인적인 믿음이 적용되

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말이 더 잘 들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들이 신앙을 사용해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지역사회에는 문제가 있으며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동기를 부여받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5명 중 1명 이상(22%)은 이렇게 하면 듣는 경향이 더 높다고 말한다.  
라이프웨이의 스타트 맥코넬은 따라서 “당신의 교회의 전도 사역은 단순한 봉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메시지의 일부입니다.”라고 한마디로 지적해준다.  
“저는 그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할뿐만 아니라, 22%는 크리스천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더 많이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여러 인종/민족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7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개신교 교회의 81%가 주로 하나의 인종 또는 민족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2013년의 86%에서 감소한 수치지만 불신자들의 21%가 교회에서 다양성을 볼 수 있다면 기꺼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불신자들은 신앙에 대한 대화에 열려있으며 우리들이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정기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토론에 훨씬 더 개방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 거대 위험발생 때...

(2면에서 계속)  
같은 날 완구회사 해즈브로, 통신회사 AT&T 등도 비슷한 지침을 내놨다. 전날인 11일에는 맥도날드가 합류했다. 미국의 최대 고용주로 꼽히는 유통 기업 월마트, 구글과 마이

크로소프트 등도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일부 기업은 협력업체 직원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사실상 접종 강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건강 또는 종교적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근로자

를 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백신 접종 여부가 일자리를 유지 문제로 이어지면 백신 기피자 중 상당수가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인 전망이 나온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정식 사용 승인을 내린 백신이 나오면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지만 완강히 백신을 거부하는 강경파는 끝까지 미접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

다.  
법원은 백신 기피자 편에 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이미 1905년 미 연방대법원은 중요한 선례가 된 판결을 내놨다. 헤닝 제이콥슨 목사는 천연두 접종을 거부하는 성인에게 벌금 5달러를 부과하는 매사추세츠 주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존 마셜 할린 당시 연방대법관은 “사회는 구성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거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시론

### “다시, 오직 주님만이!”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11년에 미국에서 발간된 'The Happiest Girl in Korea'란 제목의 책에는 1900년대 초 조선에서 헌신한 한 여성교사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영혼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인 '미네르바 구타펠'은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 여성교사로 1903년에 내한하여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다 1912년 귀국하였습니다. 구타펠은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들과 당시 조선의 모습을 여러 선교잡지에 기고하였는데 이를 모아 출판한 책입니다. 이 속엔 9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이 된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인 옥분이 이야기 2편, 조선의 여자 아기의 입장에서 일인칭으로 쓴 '조선 아기의 생각', 맹인 소녀 이야기, 조선의 왕자 이야기 2편 그리고 전차를 타며 당시 조선의 풍물을 묘사한 글 등입니다.  
이 가운데 옥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옥분이 처음 병원을 찾은 건 14살이 되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이끌려온 옥분이는 손발에 온통 동상에 걸려 거동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후 병원에 입원을 하여 거의 1년간을 정성껏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은 두 손과 한쪽 발은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옥분이는 가난에 찌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굶주림과 추위를 벗어날 수 없게 살다가 어느 날 남은 동생들의 양식을 위해 부엌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엌집에서도 굶주림과 추위는 계속되었고 오히려 고된 일과 매질까지 덧붙여졌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손가락 발가락에 하나씩 동상에 걸려 힘겨운 삶의 무게에 고통마저 더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동상은 더욱 심해져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때서야 옥분이를 데리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데려와 '가능한 빨리' 나서서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의사에게 부탁하곤 떠났습니다.  
그해 연말 크리스마스가 되자 선교사들은 병원 내에 비록 싸구려 장식품 몇 개뿐이지만 정성껏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옥분이는 그동안 자신을 잘 돌봐주던 선교사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새해가 되면 본국으로 되돌아가갈 예정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본국에 되돌아가면 그곳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선교사에게 부탁합니다. “옥분아, 사람들이 옥분이를 모를 텐데 너를 뭐라고 소개할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 전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찌지?” “그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조선에선 오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대 네가 가장 행복한 이유를 말해 줄 수 있겠니?”  
“그럼요. 첫째는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매일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셋째는 이곳에 온 후론 배고픈 적이 없어요. 넷째는 의사선생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어도 된대요. 다섯째는 크리스마스트리요. 그렇게 예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다 했니?” “아뇨 하나가 더 남았어요. 선교사님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기도했더니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라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자녀삼아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요. 나는 진심으로 그걸 알아요.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내가 가장 행복한 이유가.” 4년 후 18세가 된 옥분이는 병원 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안나’라는 세례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피운글).  
그동안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심코 살아왔던 저희들의 마음을 쿡쿡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주님의 구원입니다. 바로 주님으로 인한 삶의 감격과 진동과 울림입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과 교회에는 “바로 주님의, 바로 주님으로 인한, 바로 주님 때문에”가 점점 멀어져 희미해져 잃어버린 지도 모르는 채 매일을 삽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없이 세상에 끌려 다닙니다. 이젠 그 울가미에서 벗어나, 우리를 향하신 처음 질문인 “Where are You?”(창3:9)를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직면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수정 해야 합니다. 그대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환란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게 됩니다.  
서서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올 가을에는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진정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다시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과 교회가 다시 무릎 꿇어야 할 제단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풍성한 역사가 체험되는 감사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pastor.eun@gmail.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 등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제10차 디퍼런스 공개 세미나

**You are not wrong. You are just Difference!  
디퍼런스, 바로 당신이 남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2021년 9월 25일(토) 오후 2:00-4:00**

**Difference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만의 고유한 내면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디퍼런스는 기존의 심리도구와는 달리 사람의 사고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전인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로서 사람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인간 이해 도구입니다.

**디퍼런스의 유익**

- 디퍼런스를 알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자신을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이해심이 향상되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 진로 및 인생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공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제10차 공개 세미나  
일시: 2021년 9월 25일(토) 오후 2:00-4:00 (미국 서부 시간)  
참여 방법: 온라인 실시간 zoom 화상 세미나  
회의 ID: 852 9071 6995  
암호: 261930  
문의: 562)822-3078

\*공개 세미나 참석자 중 초급 과정 등록하시는 분께는 수강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NO Problem

한국의 한 공영방송사가 지난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부적절한 사진과 자막을 내 보내 거센 비판과 함께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체르노빌 원전사고 사진을 내보냈고, 아이티는 폭동사

진과 함께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개 속'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미국의 수도를 워싱턴DC가 아닌 '워싱턴'으로, 마셜 제도는 '한때 미국의 핵 실험장'으로, 아프리카 가나를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방송사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실제 경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 루마니아 축구경기 중 루마니아 선수가 자책골을 넣자, "고마워요 마린. 자책골"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 자막을 본 네티즌들은 방송사가 루마니아 선수를 조롱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한국 네티즌은 루마니아 축구협회 SNS계정에 그 자막에 대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축구협회는 "괜찮다. 문제없다. 한국이 승리할 만 했다"고 반응하며 그 네티즌을 오히려 다독였습니다. 그 축구경기는 한국이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진정한 승자는 루마니아 축구협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O Problem! "괜찮다", "문제없다", "NO Problem" 루마니아 축구협회의 이 몇 마디가 제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실 "NO Problem"은 '문제'(Problem)가 없다(NO)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인들도 "NO Problem"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민족이라서? 서부 카우보이처럼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해서? 마음이 비단결 같고 이해심이 많아서?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 일어나는 남다른 야성이 있어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인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도 "NO Problem"하며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 부터 부탁을 받았을 때도 "NO Problem" 하며 가능한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말 안에 말하는 사람과 그 사회의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NO Problem"이란 말이 나올까요? 물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지 지켜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염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투병 생활로 지치셨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낙담이 되십니까? 나의 힘든 마음을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느냐? (NO Problem!)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메시지성경).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NO Problem!!!"입니다.

# 푸/른/초/장

장덕상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개혁장로교회)



'신명기'(Deuteronomy)의 제목은 1장 1절에 언급한 것처럼 '언약의 갱신'(Renewal of the Covenant)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 족속처럼 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신 것은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들도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언약의 선언을 아멘으로 확인하는 장면이다.

대한 이스라엘의 구별된 고백을 보존하고,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를 이교적 영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암몬 사람(Ammonite)과 모압 사람(Moabite)이다. 암몬 사람은 그들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리고 모압 사람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그러했다. 암몬 사람의 죄는 소극적인 죄(passive sin)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모압 사람의 죄는 적극

풀었던 친절을 기억하고 말씀하신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 대 후 자손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신 23:7-8)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나그네 즉 외국인을 선대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율법의 가장 중요한 실천명령 중 하나이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

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 10:18-19). 신명기에서 '나그네'라는 단어는 ESV 성경에서는 'sojourner'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일시 체류자 또는 거류민이라는 말이다. 구약성경은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34). 그리고 이 구절을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31).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되는가? 훗날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자기들의 상대적인 의를 드러내고, 다른 이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방인을 혐오하고, 장애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오용하고 있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바로 잡아주시면서 신명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신명기에 대한 해석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다. 혼인문제, 안식일 문제, 네 이웃이 누구인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하신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 9:2-3). 율법은 결코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와 다른 누군가를 혐오

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음을 기억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엡 2:11-13).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이방 여인이었다. 그들은 여리고의 기생(prostitute) 라합과 모압 여인 룓이다. 성경은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이다!

세한 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땅의 팔고 창기와 몸을 섞은 땅자들이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그들이 끊어져야 마땅한 자들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이다.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와 연합하여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는 이야기이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오직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 성도의 회중에 들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눈에 여전히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에게서 철저히 악한 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방인을 품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환대하며 품어주고 사랑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krpcpastor@hotmail.com

# 자격 없는 사람들

## 신명기 23장 1-8절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써 언약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규칙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와 총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는가? 모세는 먼저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남자'(A man has been emaculated by crushing or cutting)를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거세를 행하는 가나안 종교의 부패한 의식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보인다. 절대로 성적 장애인이나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생자'(מגור, born of a forbidden marriage)이다. 이것도 역시 가나안의 신전 창기의 아들이나 딸을 묘사하는 말이다. 신명기 23장 17절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이는 출생시에 이방인에게 바쳐졌을 것이다. 이교신앙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혼합시키려는 시도는 불순종이면서 또한 위험하다. 이 두 계층(거세자, 사생자)의 사람은 이방종교의 육체적이고 도덕적으로 해로운 관행을 나타내는 슬픈 증거였으므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같이 참석자를 제한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적인 죄(aggressive sin)였다. 그들은 발람의 예언자적 신탁을 통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덤비는 자들을 대하는 것은 차라리 쉽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신다.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소극적인 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6절)고 명령한다. 이를 직역하면 그들과 친선조약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 말은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는 뜻이다. 결국 이 명령의 목적은 그들의 태도를 배우지 말라, 즉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 외국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폐쇄적인 삶을 살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애굽 사람들이 예전에 너희에게 배

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 10:18-19). 신명기에서 '나그네'라는 단어는 ESV 성경에서는 'sojourner'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일시 체류자 또는 거류민이라는 말이다. 구약성경은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34). 그리고 이 구절을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31).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되는가? 훗날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자기들의 상대적인 의를 드러내고, 다른 이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하고 배제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과 정의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요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목적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이사가 선지자는 그 구원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한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사 56:3-8).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Eunuch, 고자)를 기억해야 한다. 처음 세례 받은 이방인은 바로 고자였다는 사실!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그는 바로 이사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다가 빌립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 세례를 받고 구원 얻은 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다. 스스로를 거

난민과 교회위해 ...  
(3면에서 계속)  
탈레반의 탄압 대상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다. 그동안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거나 미군

을 위해 통역활동 등을 한 아프가니스탄 주민 역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미군 통역을 했거나 정부 관리로 일한 주민만 수만 명으로 이들도 탈레반의 추적대상에 포함된 뒤 현재 도피생

활을 이어가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운명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기독교 단체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수만 명에 달하는 아프

간 기독교인 및 미국과 연관된 주민들을 미국이 난민 자격으로 받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갈보리장로교회는 미국 Missouri 지역에 위치한 미국장로교단(PCA) 소속 교회로서 1991년 설립한 이후 2002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30년 동안 복음전파를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자격**

미국장로교회(PCA)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목회경력: 5년 이상 / 이민목회 경험자 / 나이:40-55세까지)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최근 설교동영상 (CD, DVD, Web address)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목회경험/ 신앙고백/ 신앙 간증 / 성정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추천인 1인의 추천서  
목사 안수증 및 학위 증명서  
제출 마감일: 2021년 9월 19일  
제출처: chappark01@gmail.com  
Calvary Presbyterian Church 110 Susie Dr. St. Robert, MO 65584

**기타**

1.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Word, PDF).  
2.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3.청빙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갈보리장로교회 청빙위원장**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세상의 지혜, 지식, 물질, 배경 등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오직 한 가지를 분명히 정리하고 가면 될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믿음”이다. 감당할 일이 좋고 나쁘고, 감당할 조건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지 않을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대상, 즉 맡겨주신 자에 대한 믿음만 변치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일들, 사회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바탕이 된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 그 모든 기초를 시작해야 한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믿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준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믿음, 최선의 준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의 섭리 안에서 그를 애굽에 오도록 하셨다. 그러나 요셉의 삶의 출발은 그에게 이해와 상식을 가지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일 뿐이었다. 형제가

게다가 모든 상처를 품고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보디발의 집에서 마음잡고 일하는데, 이제는 보스의 아내가 자신을 죄 가운데 유혹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조건 속에서도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신앙으로 승리하였다. 그런데 이젠 또 무엇인가? 그럼에도 그가 가야 할 다음 종착지로 예비된 곳은 다름 아닌 정치범 수용소 감옥이었던 것이다. 보통의 죄명을 따라가면 잡범들이나 가는 감옥에 갔을 터인데 그가 간 곳은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던 그런 고급 수용소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다시 기가 막혔을 것이다. 형제들에게 죽기 직전에 노예로 팔려와 그래도 살아보려 하지 않았던가?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승리가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다시는 햇빛을 보기 어려운 정치범 수용소란 말인가? 전혀 이해와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설명되지 않을 그런 매 순간 순간마다 순수하고 단순하게 반응했던 것을 본다.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해석

서, 특별히 억울한 감옥살이이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참으로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곳 지하 감옥에서 그는 고급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아마도 그들로부터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등과 고급 애굽어까지 습득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한마디로 총리가 될 학습준비를 거기서 했다고 볼 수 있다.

**삶을 이기는 능력**

요셉을 요셉되게 한 모든 일들의 중심에 그의 믿음이 존재한다. 그의 단순하고 간결한 믿음이 순간순간 그의 삶을 이성과 상식의 그늘아래에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극한 위기들 속에서도 잘 버티고 견디게 해주었으며,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서 이를 멋지게 극복하고 삶의 튼실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들을 보노라면 믿음, 신앙의 준비가 모든 중심에 자리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다. 믿음은 힘이다. 신앙은 삶을

선명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학교를 위해 일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평교수가 총장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총장을 시켜주시더라’는 것이다. 결국 신학교와 교단을 모체로 하는 대학에서 목사 아닌 장로가 총장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코람데오의 신앙이 현실 속에서 삶의 열매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뉴욕 맨하탄의 델리 가게에서 일하는 잘 아는 교회 집사님이 계셨다. 주인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한다. 담임목사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교육시켰다는 것이다. ‘가게 출근하면 주인이 네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해라. 그것이 사명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다. 그 말에 순종했던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 어느 날 그 주인이 집사님을 부르더니, 열쇠를 맡기더라는 것이다. 본인은 한국에 갈 테니 가게를 잘 운영하면서 돈을 보내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분의 고백이다. ‘중이 주인처럼 일을 하니 주인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오늘날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특성을 알려주시고 이 시대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요?  
-하버에서 이희은

**A:** 모든 시대에는 진보를 믿는 낙관주의적 성향을 띠어 이 세상은 점점 관망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차례로 겪으면서 그 환상은 여지없이 깨어졌습니다. 포스트 모던적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합신의 이승구교수의 ‘광장신학’을 많이 참조해서 정리하였습니다.(p.354-369).

첫째는 이성중심주의의 비판입니다. 이성이 보편타당성에 강한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를 비정상적인 것 열등한 담론체계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근대적 합리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성중심의 논의보다 의사전달에서 이야기(story, narrative)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Story-teller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 전체를 지배하는 것보다 다원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중앙집권적기보다 지방분권적이고 모든 면에 다원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리를 다 들어야 하는 다수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은 마치 하이브리드 차처럼 어떤 것이 표

**시대와 사상은 변해도 복음은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

준적이다 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론은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거부합니다.

셋째는 탈구조와 해체(deconstruction)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포스트모던 신학을 말하는 테일러는 “나의 텍스트는 나의 것이 아니다...작품은 단일 저자의 산물이 아니고 항상 많은 저자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어떤 입장에서는 책이라고 부르기를 회피하고 항상 텍스트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포스트모던이란 본질적으로 형식 파괴적이며 문화적 무질서의 상태라고 한다. 결국 모든 전통과의 단절 현상을 낳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철학적 의미의 주체상실을 특징으로 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으나 포스트모더니즘은 “나는 과연 있는 거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고 붙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의 입장에서 시대와 상황이 변해가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는 성경의 단언은 참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역사상의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며 니케아-콘스탄티노플-칼케돈 신조가 규정한 그분의 정체성이 성경의 묘사에 충실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가 진정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와 배경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에게 구주와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시대 사조는 변해가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구원자가 된다는 측면에서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구원을 기독교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와 사상은 변해도 불변하는 영원한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

- 사명, 믿음, 신앙

자신을 죽이려 했고, 그 과정에서 노예로 팔렸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서 애굽 이민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그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서도 그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열심히 노 마당을 쓸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과정을 지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마당 쓰는 종들과 집안의 모든 종들을 총괄하는 그들의 매니저가 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보통 사람처럼 이해와 상식의 틀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자 했다. 그는 아마 제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원수 적들도 아닌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때 지어 죽이려 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에게 닦힌 이런 저런 문제들을 오늘날 생각해보면 그는 단 하루도 제 정신으로 살지 못할 트라우마를 가졌을 것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상처, 과거의 그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그가 그런 말을 안 했더라면... 등등’의 말로 자신의 연약한 신앙을 해석하기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아마 저들의 표상 같은 인물이었을 법 할 것이다. 상처투성이, 정신분열증, 혹은 현실 부적응의 온갖 이유들을 다 갖다 부칠만한 인생이 요셉이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이다.

**이해와 상식, 믿음**

이 되지 못하면 해석을 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해석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을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요셉은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하려 하거나 혹은 상식의 선에서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다.

훗날 형제들과의 상봉에서 발견되는 그의 면모를 보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것 뿐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삶을 해석하지 않고, 단순하게 살아내었던 것이다.

**섭리를 이루는 준비과정**

믿음을 해질만한 생각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취하는 자세가 그러하다. 그런 단순한 믿음의 신앙이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가장 올바른 처신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의 총리로 잘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셉의 애굽에서의 위치가 최종적으로 총리대신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준비 없이 저절로 되지는 않을 일이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오는 순간, ‘너 오늘부터 총리 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십년 넘은 세월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

이기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신앙이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어떤 신앙이 그토록 능력이 되는가? 순수한 신앙이다. 단순한 신앙이다. 복잡하지 않는 것이다. 믿었으면 믿은 대로,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신앙은 기술로 하는 것도,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신앙은 이해와 상식도 아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식에 교회를 꺾어추려하는 것을 본다. 잘못 가는 길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다. 부족하며 부족한 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는 것이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신앙은 그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원리가 된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에 섰는 사람은, 그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들 앞에서도 넉넉하게 잘 준비되어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눈치**

고신대 총장이신 안민 장로님이라고 계신다. 이분은 평교수 시절에 자신이 주동하여 합창단을 만들고 찬양집회와 간증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한다. 집회 중에 그는 대학의 현실을 소개하면서 학교에 음악실을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학교를 위한 후원들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가 한 일들은 실제로 총장이 했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평교수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의 것이 내 것이 되더라’는 것이다.

폴린 파월 합참의장은 흑인으로서 합참의장에 오른 사람이다. 그의 전기를 보면 그의 삶에 모멘텀이 있었던 것을 본다. 대학시절 그로서리 가게 일을 하였는데, 퇴근할 무렵에 창고에 폴라박스가 넘어져 주위가 어지럽혀 있는 것을 보았다. 보통의 상식은 그냥 나갈 일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우연히 주인이 보고서는 그 주인이 그의 학창시절을 지나는 동안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었다고 한다.

그때 그 일을 계기로 그는 그의 전 인생을 좌우할 모멘텀을 발견하게 되었다.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사상이었다. 그는 아주 간결하게 말한다. “Someone is watching. Who is someone? Someone is God.” 그때부터 그는 ROTC 장교를 거쳐서 위관 장교, 영관장교, 장성에 이르기까지 늘 항상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이 사상 가운데 최선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영광도 얻을 수 있었노라고 말한다.

**삶의 준비, 신앙준비**

기독교의 신앙은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순례의 행진을 시작한 것이다. 이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

라 주와 동행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삶이다. 현실의 삶은 거친 광야와 다름 바가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해와 상식을 들이대고 설명과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성은 과부화(?)로 문제가 드러날 것이며 삶은 피폐하고 말 것이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해와 상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한다. 조금 더 순수하게 조금 더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이다. 어려움이 닥치면 닦치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한결같

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흑여 힘이 되지 못해 보일 지라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세상사는 것이 힘이 드는가? 기술과 재능으로 이기려하지 않기를 권한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이기고 경영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다.  
davidnjon@yahoo.com



**목회서신**

**“세대교체 vs 바통터치”**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운교회)

어제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음세대 사람들을 세워서 사역과 행정을 하나씩 이양하는 작업을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계획성 있게 은퇴를 준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세대들에게 이양하는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저는 그 목사님

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대답은 목회사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음세대들에게 이양하려고 하는 목회 사역과 행정을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본 결과 “교회 사역의 일”과 “교회 행정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과 대화를 곰곰이 리뷰 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있었던 어느 은퇴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30-40대 목회자들이 주축이 된 성경공부 모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첫날 성경공부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 앞에 일어나셔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주님이 맡겨 주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해주시지 못하고 이렇게 은퇴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

다.” 그 목사님은 매우 덕스럽게 이만목회를 하시고 은퇴 또한 덕스럽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일과 교회 행정의 시스템은 매우 덕스럽게 다음세대 리더에게 잘 이양을 해주었는데 회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통터치 해주는 일은 부족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 본다면 세대교체(나이 교체, 교회 사역의 일 교체, 교회 행정의 시스템 교체)는 잘 이루어졌는데 바통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토록 화려했던 유럽 교회의 예배당들이 왜 이상한 장소로 전락해버린 것입니까? 틀림없이 세대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통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통터치는 앞에 가는 선수가 손에 쥐고 있던 바통을 다음 선수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1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바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할 바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세대에게 바통터치 하는 것, 바로 이것이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꾸어야 할 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 바통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바통터치 함으로 그들을 종교인에서 탈출하여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전환되어지도록 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사활을 걸지 않고 안전하고 매끄러운 세대교체에 방점을 두려고 하는 생각 또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음 세대들 안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꾸어야 할 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 바통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바통터치 함으로 그들을 종교인에서 탈출하여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전환되어지도록 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케냐에 흉부외과 전문센터 설립**

아프리카 케냐 서부 보메트의 텐벡병원으로 젊은 농부 빈센트(30)씨가 찾아왔다.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지 못하면 몇 달밖에 못 살 거란 절망적인 소식을 접한 후였다. 다행스럽게도 텐벡병원은 현지에서 심장 수술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곳이었다. 의료진의 보살핌과 기도 속에 무사히 수술을 마친 그는 농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퍼스(SP·회장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선교병원으로 협력 중인 텐벡병원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의료선교 사역의 결실 중 하나다.

SP의 한국지부 사마리안퍼스코리아(SPK·대표 크리스 위크스)는 지난 27일 기독교 의료인과 선교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관련 사역을 소개했다.

SP에 따르면 빈센트씨는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현재 텐벡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기다리는 인원만 650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수술실과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탓이다.

랜스 플레이어 SP 국제의료선교 디렉터(의사)는 이날 “SP는 내과 전문의로 15년 넘게 개인병원을 운영해온 내과 의학과 복음을 접목할 기회를 찾아왔다”면서 “2002년 텐벡병원을 처음 찾았을 땐 수천명의 현지 아이들과 청년들이 류머티즘성 심질환으로 죽어갔지만, 당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의약품만 제공하고 증상을 완화해주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SP가 2022년 가동을 목표로 텐벡병원 내 흉부외과 전문센터 설립 작업에 착수한 이유다. 센터가 완공되면 매년 2000번의 수술도 가능해진다. SPK도 이 사역에 동참한다.

이날 비제이 안 SPK 기부사역국장은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사역 동참을 권면했다. 안 국장은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진 행된다”면서 “긴급 구조대와 같이 재난에 가장 먼저 대처해 사람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도움을 주려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역은 기독교 공동체인 현지교회와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했다.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과 박상은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 김민배 아이원바이오 대표도 이날 SP 사역의 의의에 공감하며 동참을 약속하는 축사를 전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흉부외과 전문센터 건립은 케냐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모든 이들을 돕는 일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 간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은 건 SNS뿐” ...**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이후 소셜 미디어(SNS)에서 아프간 현실을 알리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아프간 출신 2세대 여성 인물 루언서들이 주목받고 있다.



7만3000명 이상의 틱톡 팔로워를 둔 크리스텔은 아프간 현지에서 있는 이들의 비통함을 공유하

는 콘텐츠를 계속 업로드하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SNS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필터링 되지 않는 미디어는 SNS뿐”이라며 자신이 고국에서 벌어지는 혼란 상황을 전하는데 매달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크리스텔은 미국에 이민해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지만 가족은 아프간 현지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NBC 뉴스 측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성을 제외한 이름만 보도할 것을 요청했다.

자흐라 하시미(Zahra Hashimee·22)는 아프간 의회 의원들에 행동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이끄는 청년이다. @muslimthicc이라는 이름으로 300만 틱톡 팔로워를 보유한 그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에 아프간 의회에 항의 전화를 거는 방법을 공유하며 팔로워들에 단체 행동을 독려하고 있다.

자흐라 하시미가 제공하는 구글 독스 링크에는 관련 부처 명단, 연락처와 함께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해줄 것을 국제 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전화 대본도 담겨있다.

그는 지난 17일엔 틱톡 계정에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라며 아프간 의회에 항의 전화를 거는 동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다.

정기적으로 뉴스를 확인하기 어려운 팔로워들에게 뉴스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0만명에 육박하는 아예다 샤담(Ayeda Shadab·28)은 아시아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아프간 출신 인플루언서이다. 그는 인스타그램 피드와 스토리를 활용해 아프가니스탄의 최신 소식을 전하고 있다.

NBC 뉴스 등 외신들은 이들의 활동을 소개하며 “아프간에서 SNS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조차 특권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프간 전역의 주민들은 휴대전화와 SNS 계정 등에 올렸던 사진들이 서방 국가나 국제 인권 단체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적될 것을 우려해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있다.

**“연락처에 서방국가번호 있으면 사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전했다. 그는 “탈레반이 휴대전화를 수색하면서 서방 국가 번호가 연락처에 있으면 사살하고 있다”며 “점점 아프간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로부터 소식이 두절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에서 지하교회 등을 섬기며 활동했던 로비 도킨스 선교사는 최근 아프간 동역자들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탈레반은 민간인의 집과 사무실 등을 무분별하게 수색하고 있으며, 이들 중 몇몇은 아는 기독교인들 집을 찾아가 위협과 갈취를 하기 시작했다.

한 아프간 기독교인은 “바미안 지역 신자에게 들었다”며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기독교인 말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도킨스 선교사는 “이것이 지금 탈레반의 민낯”이라며 “아프간 어디서든 기독교인을 발견하면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탈레반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탈레반이 원하는 건 이슬람교로의 개종이 아니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간 교회들, 기독교인

의 말살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킨스 선교사는 “탈레반이 방송에 나와 스스로 옛날과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여성들은 온몸을 가리게 될 것이며 교육의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지 친구들에게 받은 메시지 내용”이라며 “탈레반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에게 선을 향한 계획은 없고 오직 파괴만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도킨스 선교사는 아프간을 위해 세계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다. 그가 공개한 여러 명의 메시지 끝에 하나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pray for us)”는 요청이 있었다. 도킨스 선교사는 “아프간 형제들에게 오는 메시지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탈레반에 의해 기독교인이 살해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본 형제도 있었다”며 “탈레반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들이 이 나라 교회를 감히 해치지 못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카불 희생자 사연 ‘동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현지 시각으로 26일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전사한 미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희생자 중 출산을 불과 3주 앞둔 예비 아빠와 이제 갓 스물이 된 청년, 아프간 아이들에게 사랑을 건넸던 미군, 부모와 떨어진 아기를 돌보던 여군도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미국 국방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희생자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CNN과 로이터통신 등은 현지 언론은 유가족 인터뷰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중 라일리 매콜럼(20) 일병은 출산을 불과 3주 앞둔 예비 아빠로 알려졌다.

매콜럼이 아내와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엔 지난 5월부터 결혼식 사진이 올라와 있다. 예비 부모로 소개된 둘은 아기 출산은 3주 앞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매콜럼 일병의 누나 로이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강인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며 “그의 유머와 재치는 정말 큰 기쁨이었다”고 회상했다.

와이오밍주 출신 윌리 매콜럼은 2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에 합류한 그는 평생 해군 이길 바랐다고 한다. 그의 누나는 “동생은 복무를 끝내고 역사 교사와 레슬링 코치가 되고 싶어했다”고 떠올렸다.

또 다른 희생자인 해병 카림 니코이는 2001년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해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테러 당일 아들이 있던 장소에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퇴근도 노심조사하며 TV 앞을 지켰다고 한다. 결국 집으로 찾아온 3명의 해병 대원으로부터 비보를 전해 들었다.

니코이는 테러 전날 아버지에게 카불 공항에서 아프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랑을 건네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아버지는 “아들은 아프간 전쟁이 시작될 때 태어났고 전쟁이 끝나니 생을 마감했다”며 슬퍼했다.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인 로브 포트만은 트위터에 통해 20대 초반의 해군 의무병인 막스톤 소비아크도 이번 테러의 희생자였다고 전했다. 소비아크는 고등학교 시절 축구팀 소속 우등생으로 활약하며 2017년 졸업했다.

또 전투복 차림의 여군이 온화한 표정으로 갓난 아이를 껴안는 모습으로 미 국방부가 지난 21일 트위터에 올리며 감동을 전한 사진 속 주인공 니콜 지(23) 병장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병장은 평소 인스타그램을 통해 군인으로서는 느끼는 행복감을 드러내 왔다. 지난 21일에는 아프간 공항에서 고아가 된 아기를 돌보는 사진을 올리며 “내 직업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루

뒤 그의 마지막 게시물이 된 사진에서도 역시 군복을 입은 채 미소를 띤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에는 네티즌들의 추모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카불 테러로 희생된 전사자 13명의 평균 나이는 22세로 해병 11명, 해군 의무병 1명, 육군 소속 1명이다.

**탈레반 최대 돈줄은 ‘아편 밀수’ ...**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밀거래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프간은 전 세계 아편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아편 밀수는 탈레반의 최대 돈줄로 추정된다.



아프간과 국경을 접한 중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프간산 아편이 파키스탄과 신장위구르자치구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지난 17일 아프간 장악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약도 생산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마약 밀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유엔 마약범죄국이 지난 6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아프간은 전세계 아편과 헤로인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은 탈레반 점령 지역에서 재배한 양귀비로 만들어졌다. 아프간이 2019년 아편 생산, 소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최대 21억달러로 추정된다. 그해 아프간 국내총생산(GDP)이 191억달러였으니 10%가 넘는 규모다. 미국은 그동안 탈레반 마약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00억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프간의 양귀비 재배량은 최근 3년간 계속 늘었다. 아프간은 4년 전부터 필로폰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탈레반이 아프간 통치를 위해 결국 마약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 원조가 끊겨 자금난을 겪고 있는 탈레반으로서 별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탈레반의 마약 근절은 아프간 내부적으로 그다지 환영 받는 정책도 아니다. 아프간 빈농들은 밀 재배로 얻는 소득보다 10배 가까운 소득을 양귀비 재배로 얻고 있다고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탈레반이 지난해 아편 재배업자들로부터 4억6000만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물론 탈레반이 마약 밀수로만 자금을 조달하는 건 아니다. 미국 CNN방송은 “서방 정보기관에 따르면 탈레반은 불법적인 광물 채취와 그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의 거둬들이는 세금, 아라비야만의 민간 기부자 등 다양한 자금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미군 철수로 아프간 등 중앙아시아에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는 건 중국으로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아프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헤로인의 주요 경로는 파키스탄과 신장을 경유하는 것이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아프간의 마약 밀수를 억제하지 못하면 국가 안보는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마약 밀매에 연루된 세력이 신장의 극단주의 테러 조직과 결탁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간에 양귀비를 대체할 수 있는 농작물 재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언제 에덴동산(천국)에 들어가는가? (3)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들교회, GPS센터 대표)

2. 다니엘 계시록을 읽으면 마지막 때가 보인다

### 1)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길

우리의 영적인 적은 누구인가? 정통교회와 성도들은 영적 전쟁이라 많이 이야기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적그리스도(요일4:3)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대부분 인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그리스도 대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조차(마24:36; 막13:32)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를 알아야 하고(도표2), (계 20:2-4)천년왕국, 천년년설, 후천년설이 없음을 알고 올바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도표2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 7, 8, 9, 11장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있고 지금은 거의 마지막 한나

여 예수님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가 인간을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세 가지 패러다임에서 출애굽 하셔서 외무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는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계락을 하고 있는지 보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길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히 예수님께서 다니



도표2

## 단9:24 하나님은 이 세상을 70이레로 정하시고 70이레 그 다음은 그리스도나라가 세워진다

라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만이 남아 있습니다. 도표2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때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책을 먹어버리고(도표2) 예언(목회)하라는 (계10:9-10)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앞세워 계속해서 (창3:6)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훼방하며 최후에는 대 환란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믿는 성도들을 최악으로 꺾박을 하며 발악하며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구약과 신약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지를 모르게 합니다.

다니엘, 계시록을 통해 말씀과 예수님의 계시를 주셨지만 우리들은 (마24:36)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잘못된 패러다임에 묶

엘을 통해서 사도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7장에 의하면 하늘에서 네 바람이 세상이 들어와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바벨론 제국) 둘째 짐승(메데바사제국) 셋째 짐승(헬라제국) 넷째 짐승(로마제국)을 통하여(단2,7,9) 로마제국은 BC 63년에서 AD 1467년까지 통치하였고 AD 1957년에 열 벌 혹은 열나라 혹은 EU 연합국가 경제적 연합으로 EU(열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7장 9장 계시록 6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열나라(열 벌)에서 한나라가 나오기 직전 열나라 중 강한 세 나라가 퇴출된 후에 한나라가 나온다고(단7:20)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020년에 영국이 EU에서 퇴출되었고 앞으로 두 나라가 EU에서 퇴출되면 한 나라가 나오는데 한 나라의 통치 기간은 7년인데(단2:44; 단7:24, 계3:1) 전 3년반(1260)을 두 증인들(남종과 여종)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예언하게 되는 권세(계11:2-3)를 주시고 후 3년반, 한 때, 두 때, 반 때에는 단9:27 말씀같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깨고 거룩한 곳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포악함과 최후 발악할 것입니다(단9:24).

정한 시기에 세상나라 위에 그리스도나라가 세워지므로(계11:15) 세상나라는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나라에는 아무런 피조물도 해와 달도 필요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통해 바벨론제국, 메데바사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에서 나오는 열벌(열나라)에 혹은 열벌에서 한나라가 나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요, 정한시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벌(열나라, EU) 시대에 살고 있고 한나라가 나오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 계시록을 읽으시면 도표2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영에 양식을 준비해야할지(계7, 9장)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최종 준비는 내가 성전(고전3:16)이 되고 새 언약(렘31:31)이 이루어질 때 주

님이 오시면 우리는 휴거하며 주님과 새로운 그리스도나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휴거는 세상을 이긴 자만이 참여하게 됩니다.

### 2) 70이레(단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단9:24).

단9:24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상에서 이 세상을 70이레로 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70이레로 정하였다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이 70이레로 그 다음은 그리스도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철십 이레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andcny1@gmail.com

##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 믿음의 반응기

쉽게 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살살 피해가며 요령껏 살라는 것도 아니고 늑어서 빈둥빈둥 놀라는 말도 아닐 게다. 쉽게 살라는 것은 남의 까닭이나 하나님의 까닭으로 일어나는 일은 꿀꺽 받아들이며 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이 말리는 일로 알아차리라는 말이다. 그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확실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기의 일 이 아닐까.

그렇다 숨을 쉬는 것도 여름이 가을로 변하는 것도 힘들 이지 않고 일어나듯이, 지구도 요란을 떨지 않고 태양 주위를 소리 없이 도는 것처럼 그저 자연을 따라 사는 것이 쉽게 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낮에는 태양빛을 고마워하고 밤에는 별들을 노래하며 행과 불행 모두를 잘 누리며 살 때 삶은 더욱더 깊어지리라.

믿음은 센서와 같다. 센서는 아무 때나 반응하지 않고 반응해야 할 곳에만 반응한다. 청년이 한 자매를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주말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자매를 보기만 했는데도 심쿵! 가슴이 뛰었다. 만약 그 청년이 모든 여자를 볼 때마다 그러면 그건 병적이다. 센서는 반응해야 할 곳에만 반응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에 믿음의 센서가 반응하는 것이리라. 십자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다(갈2:20) 다시 말해서 이 땅을 향해 반응하는 센서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향해 반응이 시작된 것이다. 이전에는 이 땅에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내가 돈이 좀 생기면... 내가 아프고 병들면...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통해서만 보이는 세상을 향해 반응한다.

똑같은 십자가를 만났는데 그 십자가를 만난 우리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우리는 똑같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믿음의 크기만큼 다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오늘 나의 믿음의 반응기는 열만할까? 못처럼 그저 흉내 내는 반응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반응기처럼 드리고 또 드려도 조금밖에 못 드렸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반응기이면 좋겠다.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컸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기가 너무도 미약한 우리이지 않은가.

사랑해야 할 사람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너무도 알팍한 나의 믿음의 반응을 민감하게 돌아보며 이제 남은 생애동안 그 십자가 앞에 깊고 성숙한 반응을 돌리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데 보탬이 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늘을 향해 나의 믿음의 반응기를 다시 올려드린다.

changsam1020@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다민족 교회</b>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교제 및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영광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디너백 헌영 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4:00-7:00 Tel. (773)902-1112 es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킨온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엘교회</b>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9: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Winton, MA 01748
<b>안다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 인생의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의 행복

사람은 누구나 그 나름대로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고비란 말은 넘기 어려운 힘든 고개를 말합니다. 인생은 고비 고비를 넘어 일생을 만들어갑니다. 그 수많은 고비들을 잘 넘기는 것은 함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교인들이 만나게 되는 그 나름대로의 고비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고비들을 잘 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는 기쁨과 고마움과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분과는 큰일을 도모할 수

있겠구나 짐작도 하게 됩니다. 즉 크고 작은 실험들을 잘 소화하고 극복하고 넘기는 사람들은 믿음의 큰 분들이어서 자신과 그 주변은 물론 교회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지 만나게 되는 고비들을 잘 넘기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자기성장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다가 만나는 크고 작은 고비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

운 인생의 고비의 원인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금언이나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가끔 다른 사람이 주는 곤란함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사탄마귀가 미혹해 함으로 고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해 내지는 그릇된 상황인식으로 인하여 고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고비를 예방하는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폭 넓은 너그러움과 이해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 이해하기 힘든 고비를 만나

도 묵묵히 참고 이겨냄으로써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고비가 고비가 되지 않게 하는 심적 영적 관계적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가져야 합니다. 고비를 쉽게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격과 신앙의 그릇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겪은 수많은 고비들을 잘 이겨내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수도도 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큰 실망감을 주는 제자들로 인한 고비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사탄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고비들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받은 심각한 심자리의 고비도 잘 감당하셨습니다. 곧 모든 고비들을 잘 이겨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을 잘 이겨 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 중에서 교회생활 중에서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중에 만나는 고비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비들을 잘 이겨내면 행복자가 됩니다. 고비들을 잘 극복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고비들을 잘 소화하면 훌륭한 인격자가 됩니

다. 우리가 그 수많은 고비들을 이겨 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쭐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많은 경우에 자기 능력을 믿고 우쭐하여 겸손하지 못할 때 고비를 만납니다. 만나는 이웃을 존경하고 갈보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감성 상치 않게 하고 예의를 지켜 존중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고비를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내가 주님 앞에 실수한 것이나 범죄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의 쓰레기들이 우리들을 난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언어나 이웃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무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주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자세로 풀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세로 풀어나가는 것은 기도로 풀어나가고 영적인 감각으로 풀어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풀어나가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해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심지어 교회 교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욱 더 극복하기 어려운 고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신앙의 잠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철학적 고비에 무관심할 때가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암5:4).

cyd777@hotmail.com

## 죽으면 죽으리라...75세에 현장에서

### KAPC 세계선교회 이용복 선교사 파송예배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오세훈 목사) 세계선교회가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 뉴저지 소재 우리사랑의교회(담임 박종윤 목사)에서 본 교회 성도들과 KAPC 뉴욕서노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복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세계선교회 회계 장성철 목사(보스톤장로교회)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윤석 목사(브록클린제일장로교회)의 기도 후에 총회장 오세훈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오세훈 목사(세계소망교회)는 마태복음 28:16-20을 본문으로 "위대한 명령"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늦은 나이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선교에 헌신하는 이용복 선교사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선교적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용복 선교사는 경기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대우기업 간부로 지냈고 그 후에는 직접 회사를 설립해 경영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와 주 예수께 받은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서슴



KAPC 세계선교회 이용복 선교사 파송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헌신해온 선교사다.

샌프란시스코크리스천대학교 & 신학교를 졸업(M. Div, Th.D.)했으며 야전선교군(Field Mission Forces) C.C.O, 몽골 울란바토르대학 교수, 대덕대학교 교목, 중국 흑룡강성 단둥 NK, 강변선교 등을 해왔다.

이제 그는 75세의 늦은 나이에 선교지로 들어가지만 선교지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그곳에서 5-6개의 교회개척과 건축의 비전을 갖고 있다. 이런 이용복 선교사의 행보에 총회장 오세훈 목사는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위로를 하며, 죽도록 충성할 것을 권면한 것이다.

이어서 유재일 이사장(앵커리지 열린문교회)의 선교사 서약 및 기도와 선포식이 있었고, 파송노회인 뉴욕서노회 노회장 박정식 목사(뉴욕그리스도연합교회)의 격려사와 제35회 총회장 강기봉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파송교회인 우리사랑의교회 박종윤 목사의 인사와 서기 한세영 목사(워싱턴 메시아장로교회)의 광고, 그리고 제24회 총회장 천성덕 목사의 축도로 파송예배를 마쳤다.

KAPC총회 산하 세계선교회는 실제적인 총회 선교사역을 운영하기 위해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7월 이사회를 출범시켜 2021년 8월 현재 106가정을 파송했다.

(기사제공: KAPC)

## "설교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M(설교학 전공) 개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가 2021년 가을학기부터 Th.M(설교학 전공) 코스를 개설한다.

학장 김성국 목사는 지난 8월 30일 오후 본교 학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위개설에 대한 소개와 비전을 제시했다.

김 학장은 "동부개혁장신이 34년의 역사와 미주 한인 기독교단 중 최대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인준 신학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고 장영춘 목사의 열정과 헌신으로 발전



김성국 학장(왼쪽)과 정기태 학감.

예수님이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외쳐지고 있는가? 예수님 중심의 설교라는 것에

제적인 공부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 코스 개설을 통해 강단을 힘있게 만들 목회자가

### 9월 8일(수) 오전10시-오후3시 오픈 강의 강사 류응렬 목사...2년 과정 총30점 이수

해왔다"고 학교를 소개하고 "종교개혁을 통해 말씀이 제 자리를 잡게 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4년간 뉴욕지역에서 목회자를 배출해왔는데 어떻게 받은 은혜로 더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를 돕고 설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로 Th. M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개설통기를 밝혔다.

김 학장은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라고도 할 만큼 설교가 많지만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거룩함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팬데믹의 상황은 이 위기가 강단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코스 개설로 인해 말씀의 원래 의미인 명령이 선포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런지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설교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

좀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킹덤(하나님의 나라)은 왕, 백성,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잘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덤은 왕이신 예수님과 새로운 피조물인 백성, 회복된 백성의 풍성한 이야기를 뜻하고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주적 영도, 안식의 땅에 대한 주님의 증거를 외치는 것이다. 김 학장은 "예수님이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설교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학감 정기태 목사는 "요즘 미국 신학교들은 Th. M과정이 없어지는 추세다. 한인 신학교에는 Th. M과정이 없다. 그러나 본교는 한국의 종신이나 합신 졸업자와 동일하게 인정받아 비브리컬 등 미국 신학교 입학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성국 학장은 "타 신학교도 설교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본교는 복음의 절대성 전체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개혁주의 목회자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실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향후 더 큰 비전으로 다민족 신학교도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개혁장신의 Th. M과정은 설교학 전공에 집중한다. 입학 자격은 M. Div 졸업자로 2년 과정이며 총 30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각 과목은 3학점씩 논문은 6학점이다.

이번 가을학기는 △설교의 본질(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디자인(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소통(장성철 목사, 보스톤장로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I(해석)(이윤석 목사, 뉴욕브루클린제일교회) △강해설교학(김바나바 목사, 퀸즈한인교회)이 오픈된다.

이후 10월은 오픈강의로 개강부흥회(7-9일, 저녁 8시) 강사로 초청된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가 맡는다. 강의시간은 9월 8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원정 기자)

## '가까이 다가온 미래' 주제로

### 덴버할렐루야교회 선교부흥집회 열어

덴버 할렐루야교회(담임 김창훈 목사) 선교부흥집회가 지난 8

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가까이 다가온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 남가주행복찬교회 제3회 행복찬 축복 축제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김경일 목사)는 제3회 행복찬축복 축제를 8월 29일 오후 1시에 가졌다. 김경일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행복찬 찬양팀이 경배와 찬양했으며 합심기도 후 이병만 장로가 대표 기도했다.

이날 김경일 목사는 '큰비의 소리(왕상18:41-4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록한 자 깨닫는 자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자에게 부여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말씀이 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경일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예배는 행복찬 축복 축제 주일에 맞춰 초청된 교인들이 출석교인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기미 권사는 행복찬교회에 출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최선을 다해 믿음생활 하겠다"고 간증했다.

(박준호 기자)

이번 부흥집회 강사 이재환 선교사(컴미션)는 1984년부터 15년간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사역을 하며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으며, 현재는 온누리교회 선교훈련원장 및 미전도종족을 선교하는 컴미션 미국 대표이자 김달림 농장훈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창훈 목사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방향을 선교적 교회로 만들기 위해 이재환 선교사님을 초청하게 됐다. 복음을 전하는 본연의 목적이 충실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할렐루야교회가 되겠다"고 부흥집회 소감을 전했다.

▲연락처: (720)226-8113

(정리: 박준호 기자)



남가주행복찬교회 제3회 행복찬 축복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 새생명선교회 총15만불 장학금 수여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재정지원에 나선 새생명선교회(회장 박희민 목사, 이사장 박경우 장로)가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미 전역에서 총 365명의 한인 대

학생들이 지원했는데, 이들 중에서 대학생 87명, 신학생 13명 총 100명을 선발, 개인당 1천5백 달러의 장학금을 후원한다.

COVID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인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2세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취지에서 실시된 이번

장학생 선발은 예정했던 수여식은 갖지 않으며 장학금은 8월 30일(월) 홈페이지 www.newlifemissionfndn.org를 통해서 발표했다.

새생명선교회는 2004년 설립된 중국, 과테말라, 동티모르, 몽골, 루마니아 등에 교회설립과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미국내 기독교단체들을 돕고 있다.

(11면으로 계속)

# 동부교계 기사판

# 헌법개정안 통과 총회 상정

## 뉴욕교협 제3차 임실행위원회

심의를 있었으며 박시훈 목사(서기) 광고 후 안장의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 할렐루야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

한편 임실행위원회에 앞서 오전 10시30분부터 할렐루야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가 열렸다.

김신영 목사 인도로 기도 하정민 목사, 성경봉독 백달영 장로, 설교 최창섭 목사, 합심기도(박항우, 발이שראל 목사, 권캐더린 목사), 축도 정순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증경회장)는 “큰 부흥, 큰 기적”(삼상7:5-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부흥의 원리는 죄를 회개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뉴욕교협이 1975년에 설립되고 5년이 지나 1980년에 1차 할렐루야대회를 개최한 이후로 41년 동안 한 번도 대회가 중단된 적이 없이 복음과 선교로 헌신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팬데믹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42번째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리고 격려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최 목사는 19-20세기 부흥의 4가지 특징을 소개했다. “첫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함, 둘째 위험과 위기가 있어도 모이는데 적극적, 셋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함, 넷째 회개 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큰 부흥과 기적들이 일어났다.”

최창섭 목사는 “역대 할렐루야대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자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잠든 교회가 깨어나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2021년 대회에서도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 3차 임실행위원회 및 할렐루야대회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어 감사보고는 김기호 목사, 회계보고는 안경순 목사가 했다. 재정은 지난 10월 총회 이후 수입 163,605.17달러, 지출 138,574.41달러, 잔액 37,218.08달러다.

안건토의에서는 헌법개정안에 대해 이상열 혁신위원장이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열 목사는 “이번 개정안은 시대정신에 맞춰 세분화 하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일반 상식선에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규위원장 대행 김원기 목사는 “지난달 30일 법규위원회가 모여 자세히 검토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10년 만에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고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선거에 관한 것은 선관위 제척에서 다룰 것이며 개정안 모든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의한다”고 말했다.

가부를 묻기에 앞서 안장의 목사는 “제2장 회원 제7조 제4항에 명시된 ‘은퇴한 증경회장은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항목이 삽입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문석호 회장은 호신장로교회의 경우를 예로 들며 자신이 “내년에 은퇴하면 증경회장 2명, 현 담임목사, 평신도 총 4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한 교회 2표 원칙이 없어진다. 증경회장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길 바라며 어떤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부에서 안장의 목사가 반대를 표하자 표결에 들어가 11대 3으로 통과됐다.

이어서 엘피스장로교회(담임 김정길 목사)의 신입회원



뉴욕목사회 임시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미이월금 9월13일까지 납부 안하면 형사처벌

#### 뉴욕목사회 임시총회, 이준성 목사 제명 결의 확인

뉴욕목사회가 8월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7월 열렸던 2차 임실행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했다.

오전 11시 뉴욕새침장로교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회장 김진화 목사는 “직전회장 이준성 목사의 제명은 ‘회칙 제7장 상벌, 제 19조(벌칙)에 의해 총회에 보고함으로’ 결의됐다”고 밝혔다.

김진화 목사는 지난 임실행위에서 통과된 내용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으며, 1차 특별조사위(이단시비회) 2차(공금 미이월금 건), 3차(불법선거의 건) 내용을 다시 알리고 김재호 목사의 고소장 접수도 공지했다. 3차 조사와 고소장 접수는 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차 조사는 김재호 목사 제명이 잘못됐다고 결론지었으며 2차 조사는 미이월금 3,590.85달러를 9월 1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고 결의했다.

김진화 목사는 (8월 27일) “이준성 목사가 탈퇴했는데 탈퇴했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공금횡령은 일반법으로 고소하기로 돼있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한인교회 제2회 가을가족축제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자녀들을 위해 제2회 가을 가족축제(Fall Family Festival)가 9월 18일 열린다. 교회 앞 주차장을 놀이공원으로 조성해 기차 운행, 동물동장, 에어바운스, 게임, 레이저태드, 페이스페인팅, 가족사진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로 먹거리가 제공되고 아이패드를 포함한 푸짐한 경품을 있다.

▲문의: (718)672-1150

### 제 2기 사별가족 회복모임

패밀리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Grief Share”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여정 제 2기 사별가족 회복모임이 9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동부시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없다.

▲문의: (201)242-4422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의 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생명의 말씀 붙잡음으로 승리하자”

#### 동부개혁장신 제 31회기 제 15회 총동문회의 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 31회기 제 15회 총동문회의 밤이 8월 30일 저녁 7시 퀸즈장로교회 지하친교실에서 열렸다.

회장 장규준 목사(15회, 리바이별교회)는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과 믿음의 지체들이 힘들어하는 때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원한다”며 “모든 동문들과 섬기시는 70여 교회들이 말씀 중심과 개혁주의 신학으로 뉴욕 뉴저지 뿐 아니라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남은 한 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문의 밤은 장규준 목사 인도로 환영사에 이어 대표기도 이종태 목사, 성경봉독 이경남 전도사, 찬양 재학생 찬양대, 설교 학장 김성국 목사, 헌금특수 신동기 목사, 봉헌기도 정인수 목사, 격려사 노기승 목사, 감사패 증정(정기태 직전회장에게), 신학교 소개 학감 정기태 목사, 동문선교사 후원금 전달(영상소개: 브니엘선교회, 뉴비전정소년커뮤니티센터, 니카라과), 광고 김경수 목사, 축도 이종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나를 보내신 이”(출3:13-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 가운데 절대능력을 가지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

함을 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가라,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외치며 기쁨과 구원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모세를 보내신 이 우리를 보내신 주만 신뢰하고 나가는 동문, 신학교 되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이날 김성국 목사는 동부개혁장신이 이번 가을학기부터 개설하는 Th. M(설교학 전공)에 대해 소개하고 이 학위과정을 통해 뉴욕임원 교계 강단에 설교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노기승 목사는 “침례교회 담임으로 30년간 사역하다가 은퇴했는데 코네티컷의 장로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다”며 “동부개혁장신학교가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으로 가르친 설립자 고 장영춘 목사님과 교수들에 대해 언급하며 동문들을 격려했다.

김명희 전도사(브니엘선교회) 식사기도에 이어 만찬을 한 후 정인수 목사가 퀸즈대회를 진행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순환권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동부개혁장신 동문협력 선교회/선교단체/기관은 9개이며, 선교는 멕시코, 터키, 일본, 동남아, 중국, 이스라엘, 도미니카, 베트남, 니카라과, 파키스탄 등에서 14명이 선교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 퀸즈장로교회 VBS, 올해는 대면으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주최한 VBS(여름성경학교)가 8월 23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

지난해와 동일한 팬데믹 상황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줌 회상을 통해 VBS를 개최했지만 퀸즈장로교회는 올해 대면으로(지난 해는 줌으로) 목회자 5명, 교사 33명과 자원봉사자 41명이 학생 170여명을 서비스했다.

TREASURED라는 주제로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참여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중고등부 학생들로 교사들을 도와 어린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나의 보물. 나는 예수님의 보물”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

특히 영아부는 선생이 가정들이 많아 아가들과 함께 온 몸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됐다.

교사들이 특별히 준비한 중국 음식을 나누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지친 부모들에게도 힐링의 시간이 됐다.

(기사제공: 퀸즈장로교회)



대면으로 진행된 퀸즈장로교회 VBS 첫날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뉴욕교협 제 3차 임실행위원회가 16일 오전 뉴욕효신장으로 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특별헌신위원회가 진행해온 헌법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이 안은 총회에 상정된다.

회장 문석호 목사 사회로 김경열 목사 개회기도 후 진행된 회의에서 문 목사는 할렐루야복음화대회 강사 양장근 선교사의 소식을 전하면서 파라과이가 자연재해로 힘든 상태에 있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업무보고는 수석협동총무 권캐더린 목사가 2차 임실행위 이후 △분담이 목회자친목 야유회 △국가기도의 날 행사 △평등법 해약설명 세미나 △차세대정치지방생 소통 격려의 시간 △코로나 특별생활수기 공모전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준비기도회 등을 보고했다.

### 뉴저지교협 부회장후보 등록 2명

#### 회장 고한승 목사 등록, 부회장후보는 미공개

뉴저지교협 제34회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신 목사)가 지난 26일 35회기 회장, 부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회장 후보로 현 부회장인 고한승 목사(뉴저지연합교회)를, 부회장 후보 등록자는 2인이라고 밝혔으며 등록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8월 28일 오전 7시

30분 모임을 갖고, 회장 후보 등록자인 고한승 목사의 서류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부회장 2인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과 선관위 규정에 따른 법 적용 해석의 여지가 있어 “검토”하고 다시 9월 2일(목)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한 줄로 서길”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이상열 목사, 이하 기아대책) 8월 월례모임이 지난 25일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전세계 아동후원을 주 사역으로 하는 기아대책은 매월 모임을 통해 사역보고와 기도회를 갖고 있다.

아동 1명 후원비는 월 30달러. 기아대책은 현재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와 페루(김중언 최은실 선교사부부), 과테말라(장경순 박윤정 선교사부부), 코트디부아르(김형구 이선미 선교사부부),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부부)의 아동 70여 명을 후원하고 있다.

이날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선교보고를 홈페이지(breadgospel.org)에 올려냈다고 보고했다. 기아대책은 현지 수도 설치, 화장실 개조, 아동 도서 지원 등을 위한 후원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7월 27일 아동후원금 송금 및 월별 재정도 보고했다.

회의에 앞선 드린 예배는 박이שראל 목사 인도로 한준희 목사 기도 후 이풍삼 목사가 설교했다.

이풍삼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는 “한 줄짜리 인생”(히11:21-22)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한 줄짜리로 기억되는

인생”이라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한 줄로 서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두 구약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복잡한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한 줄로 요약됐다. 야곱은 축복하고 예배하고 죽었으며 요셉은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올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풍삼 목사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계시록에서 에베소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로 라오디게아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로 남았다. 우리는 어떤가? 교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믿음의 눈으로 평가되는 한 줄이 어떻게 평가될 지를 생각하고 살자”고 전했다.

이어서 조상숙 목사 인도로 합심기도(△기아대책 회장 및 회원들을 위해 △결연 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가 이어졌으며 이풍삼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의는 회장 이상열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한필삼 목사, 사역보고 박진하 목사, 폐회/식사기도 유승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열 목사는 “기아대책 사역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설교처럼 한 줄짜리 인생임을 명심하자”고 말했다.

▲후원문의: (917)862-0523, 620-8964

(유원정 기자)



캘리포니아 영적회복을 위한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초청 특별세미나에서 김사라 TVNext대표가 강의하고 있다

### 캘리포니아의 영적회복을 위해!

#### 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초청 특별세미나

캘리포니아 영적회복을 위한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초청 특별세미나가 청교도신앙회복 운동본부 주최로 8월 26일 오전 10시30분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열렸다.

강순영 목사(전 자매대표,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지난 7월과 8월에 영적대각성 집회를 준비하면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교육이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는 CRT(비판적이론)이 집권당의 지지로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모는 “오는 9월1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가 있는데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말하며 “TVNext 김태오 목사와 김사라 사모가 남가주를 방문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 세미나가 주지사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9월14일 선거를 통해 캘리포니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현 목사(예수교회) 사회와 이병만 장로(미주한인재단 남가주회장) 기도로 시작된 세미나는 김사라 사모(TVNext)가 강의했다.

김사라 사모는 “기도 외에는 캘리포니아를 지켜낼 방법이 없다”며 “중보기도를 우선한다 면 캘리포니아에 소망은 이어질 것이다. 한 예로 지난 3월17일 평등법이 상원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것은 중보기도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사모는 “포괄적동성애 인권보장법이 미국의 16개주에서 통과됐고 4개주가 통과까지

7-80%, 7개주가 30% 진행 중”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모든 사람은 존중과 품위로 대우받아야 하며 누구든 누구를 사랑하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이 표현의 의도는 미국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4.5%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칸사, 미시시피, 테네시, 아이다호 등 8개주는 다음세대와 가정을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600명의 의사와 의료전문가를 대표하는 사회적으로 보수성향의 기관에서는 선전환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7-10배 정도 자살충동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나라를 위해서다. 임신해서 아이를 갖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동성애는 이러한 소중한 일을 막는 것이며 트랜스젠더를 위한 호르몬제는 하나님나라의 생명의 꽃밭을 대위버리는 일”이라 말했다.

이어 김태오 목사가 “공립학교의 실제 사회-공산주의 사상이념주의로 몰드는 우리자녀들”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세미나전 열린 기도회는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영교회)가 ‘미국교회 부흥을 주소서’, 안현숙 사모(세여리 운영팀)가 ‘악법의 제정을 막아주소서’, 김영구 목사(세기모 서부지부 회장)가 ‘믿음의 정치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했으며 한기형 목사(미주 CBS TV대표)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GMAN대학 강사진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GMAN 대학 9월 학기 학생모집

#### 가주교육국 학위수여 승인...한시와 공조

GMAN 대학(학장 김정환 박사)이 9월 학기 학생모집을 실시한다. 이번학기는 하방선교사역자 자격증 코스와 음악선교과로 운영이 된다.

김정환 박사는 “미주한인교회에 어머머마한 선교사원이 축적돼있다”라며 “교회에서 사역의 뒤안길로 머물게 되는 은퇴세대가 선교사원”이라 말했다.

김 박사는 “은퇴세대는 제정, 지식, 전문성, 신앙의 열정이 축적돼있다. 교회는 차세대들로 인해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팬데믹으로 인해 은퇴세대가 교회의 사역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 그들을 선교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본교는 지난 8월 12일 가주교육국(BPPE)에서 정식으로 학위 수여를 승인받고 학사와 석사과정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의사들과 공조해 팀을 이뤄 전도와 단기선교하게 된다. 노년층들에게 최적화돼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선교사역자로 임명한다.

이번학기는 김정환 교수가 매주 수요일 채플을 인도하며, 임수혁 교수가 전통한의학, 강진현 교수가 무극보양법, 김인식 교수가 우쿨렐레와 기타, 주일엽 교수가 바이올린, 임보희 교수가 피아노 과목을 강의한다.

임수혁 교수는 “한방을 통해 특별히 선교지에서 침술할 수 있도록 6개월 과정으로 지도하게 될 것”이라 말하며 “저의 지도를 통해 사역지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주일엽 교수는 “음악은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에 주어진 에너지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나를 찬양하라고 하셨듯이 음악을 통해 영혼육이 살아나는 일이 많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식 교수는 “현대예배음 악에서 악기는 필수”라며 “악기를 통해 하나님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714)350-6957 (박준호 기자)

###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73%

#### 선미니스트리/GMAN,코로나위기와 선교사 정체성 설문발표

선미니스트리/GMAN(대표 김정환 선교사)는 코로나위기와 선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한인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코로나로 모든 선교지에도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고 코로나에 노출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한인선교사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사명을 감당하며 현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설문응답자는 아프리카 14명, 아시아 17개국, 북중미 8개국, 유럽과 유라시아 5개국 등 44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132명이었다. 응답자의 응답자 80%가 장기선교사, 50세 이상이 84%로 연령대가 높았다. 설문조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정체성과 소명이 확고함이 확인됐다.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가 96명(73%),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선교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됐다는 응답이 29명(22%)이었으며 △본인의 선교사로서의 소명에 대해서는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았다가 94명(72%), 어려울수록 더 정확하게 나의 소명을 확인하게 됐다가 35명(27%)로 집계됐다.

또한 배우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변함없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가 105명(80%)으로 집계됐으며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교지에 지금도 남아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60명(46%)이 ‘후회 없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으며 38명(29%)이 ‘어떠한 결과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생각했다’고 답했다.

현지선교사로서 보는 코로나 이후의 선교사들의 정체성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82명(63%)가 어려움을 통과할수록 정체성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정체성이 많이 약해질 것이라고 22명(17%)이 답했다.

현지선교사로서 보는 코로나 이후의 한국선교계의 선교대회에 대한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소규모 지역별, 전문사역별 선교대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42명(32%)이 답했으며, 온라인 선교대회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39명(30%)이, 온라인 소규모 선교모임 네트워크를 더 개발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 38명(29%), 대형선교대회 필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12명(9%)이 답했다.

김정환 선교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한인선교사들은 여전히 영혼과 마음 선교헌신은 건강하며 선교사로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감사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선교의지는 위축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후방후원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선교사들의 헌신은 생명의 헌신이 되었으며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영적으로 건강하며 현재 선교지의 어려움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선교사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714)350-6957 (박준호 기자)



김정환 선교사가 코로나위기와 선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미연합회 포럼 코리아타운 단체 리더들로 구성된 코리아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Town Redistricting Task Force)가 주도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청원운동을 펼쳤다

### LA시 한인타운 선거구단일화 청원 서명운동

#### 8월 28일 CD10 공청회에 자료로 제출

한미연합회 포럼 코리아타운 단체 리더들로 구성된 코리아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Koreatown Redistricting Task Force)가 주도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청원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8월 27일까지 10,000명 서명을 받는 것을 희망하며 청원운동을 진행했으며 지난 8월 19일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 약 3천여 명 정도가 참여했다. 현재 코리아타운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녹지공간(공원)이 가장 적은 커뮤니티 중 하나다.

선거구 단일화를 통해 커뮤니티가 하나의 선거구에 모여 있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이웃 공동체와 함께 하나로 묶이던 선출된 지역 대표자들이 코리아타운 지역사회의 관심사를 제대로 대변하도록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코리아타운이 하나가 되면 지역주민과 중소기업 모두를

위한 공공서비스(자녀를 위한 보다 나은 학교, 인근 지역도로 안정 등)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코리아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한인이나 아시안 커뮤니티만의 이슈가 아니며 코리아타운에서 생활하거나 학생, 사업가, 직장인, 한인타운 방문자들 등 모두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다.

모아진 서명은 8월 28일 오전 10시 로스앤젤레스 시 10지구(CD 10) 공청회에 자료로 제출됐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9면에서 계속) 지난 7월 22일에는 “소형교회 지원 및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해 50명의 목회자들에게 총5만 달러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세미나를 통해 미주 이민교회의 나아갈 바와 비전을 점검하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문의: newlifemissionofch@gmail.com (기사제공: 새생명선교회)

### 서부교계 게시판

#### 은혜한인교회 문화사역국 배우 스태프 모집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문화사역국은 2023년 6월 17-19일에 무대에 올릴 뮤지컬 ‘킹 데이빗(King David)’ 공연을 기획하면서 출연배우와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크리스천으로 노래와 실력을 갖춘 이들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모집부문은 주연급 남자배우 4명(솔로몬, 사울 왕, 압살롬, 나단선지자 역)과 조연급 남자 4명(및 여자배우 4명) 등 모두 8명이다. 또 스태프부문은 조연출 2명(배우면서 삼길 분 환영 또는 연출경험자), 안무가 1명(현대무용 또는 한국무용 전공), 의상 디자이너(경험자 또는 전공자), 무대미술 전공자 또는 그림 실력자 등이다. 뮤지컬 ‘킹 데이빗’은 순수창작극으로 김현철 목사가 각본을 쓰고 감독과 연출도 맡는다. 작곡/편곡은 김유신 집사, 음악감독은 최은원 집사, 안무는 일레인 김 사모 등이 맡게 된다.

▲문의: (213)215-4662 김현철 목사, ark1kim@gmail.com

#### 베델한인교회 사별가정회복 모임

베델 교회(담임목사 김한오)에서는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주간의 ‘사별가정 회복모임(Grief Share)’을 갖는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랑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잃고 상실감의 깊은 상처와 슬픔의 여정을 지내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이해와 소망을 발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 일정은 △비디오 세미나(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이야기 등) △그룹모임(삶의 나눔을 통한 생각의 정리) △실습(뜻 깊은 추억, 기도, 성경구절을 통한 회복)이다. 저녁식사가 제공되고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며 등록비는 20달러(교제비). 등록은 베델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할 수 있다.

▲문의: 한상섭 장로(949)735-8472, 이란혜 전도사(949)422-8828

#### (고)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 무료배송

LA 동부장로교회(담임 김정오 목사, 4270 W. 6th St)는 (고)이용규 목사 성경강해 설교집을 받아보기 원하는 자들이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책을 받아볼 주소를 보내주면 미국 내 전 지역에 무료로 배송해준다고 밝혔다. (고)이용규 목사 강해 설교집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제1권) △아가서 강해(제2권)을 비롯해 총 42권으로 되어있다. 웹사이트: www.eastern-presbyterian.church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

▲문의: (213)383-3261, (213)505-7831 유영아 전도사



캘리포니아 제니 래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하나님 따르는 새로운 지도자 선출하자!

#### 캘리포니아주지사제니 래 후보초청 간담회

캘리포니아 제니 래 후보 초청 간담회가 미주한인공화당 위원장인 이우호 목사 자택에서 8월28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리콜투표가 9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지사선거에 출마한 제니 래 후보가 한인들의 투표참여와 지지를 호소하기위해 열렸다.

제니 래 후보는 “13살 때 하나님께 헌신한 이후 말씀에 순종하며 부름을 따라 살아왔다”며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회개의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캘리포니아의 희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출마동기를 밝혔다.

제니 래 후보는 현재 캘리포니아가 당면한 공립학교 문제 특별히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학습을 해야 함에도 창의성을 제한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개인뉴섬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취임할 때보다 현재 노숙자들이 증가한 점, 비즈니스 환경 악화로 인해 업체들이 타주로 이주를 희망하게 된 것 등 자연재해확산을 비롯해 개빈뉴섬의 개인적 부패와 권력남용, 위선적 행동 등을 지적하며 개빈 뉴섬이 주지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유를 10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정치 리더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반성경적 정책 재고, 자녀들의 교육과 생태 환경 회복, 비즈니스 친화적 주로 나아가 수 있는 해결방안

을 갖고 있다. 이번 주지사 리콜선거는 캘리포니아 변화와 부흥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제니 래 후보는 자동차 휘발유 인상은 막을 것이며 높은 세율에 대해서는 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한 후에 손을 볼 것이라 밝혔다.

이우호 목사는 “캘리포니아가 당면한 위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죄의 길을 간 것 때문”이라며 “이번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에서 하나님이 따르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는 축복된 땅이 되도록 만들자”고 독려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는 2가지 기표항목으로 투표가 진행되며 먼저 주지사 소환에 대한 찬반을 묻고 현 개빈 뉴섬 주지사의 퇴출에 찬성한다면 누구를 새 주지사로 뽑을지 투표하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퇴출에 대해 묻는 1번 문항에서 ‘Yes’가 전체투표의 50%이상 나오면 개빈 뉴섬은 물러나게 되며 2번 문항에서 현재 출마한 46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면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퇴출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넘게 되면 출마 후보 중 다득표자가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주지사가 된다. 이는 지난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소환 이후 20년만이다.

(박준호 기자)

### 한교총, 10월까지 “보수 연합기관 통합”

#### 첫 회의...한기총·한교연에 실무 대표자 선정 제안키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10월 31일까지 교계 보수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합 대상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실무 협의에 나설 대표자를 선정해 달라고 제안하기로 했다.

한교총 기관통합준비위원회(통준위·위원장 김태영 목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교총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통합 백석,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한

국침례회 7개 교단 대표로 구성된 통준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소강석 대표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한국교회와 한교총은 대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산적한 문제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한국교회의 권위와 공의를 세우는 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예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 내며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통준위 대변인 지형은 기성 총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

합 논의에 나설 한교총 대표로 소 대표회장 장 김 위임장, 최호호 기 감 감독 그리고 본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한기총 측이 각 기관 대표회장 3자 회동을 통해 통합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부분에 대한 한교총은 대형 교단이 모인 거대 연합기관으로 각 회원 교단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전했다. 조건 없이 통합을 우선 추진한 뒤 나중에 기관 간 이견을 좁히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지 총회장은 “7개 교단 대표로 통준위가 구성된 만큼 한 사람의 주도로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 기관 형편에 따라 합법적인 협의 절차를 갖춰가며 통합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기총 “조건·전제 없이 교계통합에 임할 것”

#### 한교연·한교총에 3자회동 제안, 자체 기관통합준비 구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기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대표회장에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기관통합의 성공을 위해선 각 기관 대표회장이 모여 통합에 관한 큰 틀을 먼저 합의하는 ‘톱다운’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장엔 지난 23일 내부 임원회를 거쳐 연합기관 통합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이 대표로 나왔다. 당시 한기총은 임시총회 개최보다 연합기관 통합을 최우선 과

제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기자회견에선 그동안 수차례 통합이 무산된 전례를 들며 한기총 내 일부 회원 교단을 향한 이단 시비 등 통합을 위한 걸림돌과 한계가 문제로 제기됐다.

김 임시대표회장은 “그간 진행된 통합이 실패한 근본 이유는 결국 이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통합 성공을 위해 그 어떤 조건이나 전제도 달지 않고 내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단 문제에 대한 “한기총 내부에 어느 곳이 이단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회원 교단에 불이익을 줄성 임시대표회장이 대표로 나왔다. 당시 한기총은 임시총회 개최보다 연합기관 통합을 최우선 과

오는 9월 중 열릴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주요 교단 대표가 바뀌는 등 시적 한계 부분은 “지난 수개월 동안 물밑에서 통합 준비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이제 통합 분위기가 무르익고 성숙해져 열매를 맺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통합 실무를 담당할 기관통합준비위원회도 구성했다. 김 임시대표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지연 엄기호 전 한기총 대표회장이 고문, 김용도 한기총 명예회장이 자문위원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명식 이용은 류성춘 공동회장, 황덕광 서기, 김경환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한기총은 기자회견 후 낸 메시지에서 “교계 통합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며 “어떤 조건과 전제 없이 교계 통합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 “따뜻하게 맞이하되, 냉철하고 신중하게”

#### 한교총, 국내 입국 아프간인 관련 성명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내전을 피해 26일 국내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가슴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되, 냉철하고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군 철군과 수도 카불 함락 이후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우리 군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위협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국내 입국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이번에 입국하게 된 아프간인들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가지고 대

우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국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그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로 명명한 것은 “과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정부는 절차와 결정에서 절제와 균형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에게 대한 우려와 훗날 사리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슬람권과의 관계나 활동이 비대칭 관계에서 대칭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현지 정부군을 몰아내면서 치안이 불안정해졌다. 이에 정부는 이날 한국의 대아프가니스탄 협력 사업에 함께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 391명 중 378명을 군 수송기를 통해 먼저 국내로 이송했다. 이들은 주로 현지 한국대사관과 한국병원 등에 채용돼 한국정부에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와 일했다는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는 동료의 구조 요청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고려해 이분들의 국내이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총신대 이상원 교수, 복직 소송서 승소

#### 동성에 비판 교육했다가 해임... “위법하다”

동성에 비판 교육을 했다가 총신대에서 해임된 이상원 교수가 복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정용석)은 “이 교수에 대한 해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29일 해임취소 결정을 했다.

총신대는 지난해 5월 이 교수가 ‘2019년 2학기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총학생회에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2차 피해를 일으켰다’며 해임 결정을 했다.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다. 다시 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남성이 동성애에 이르는 유인 등에 관한 의견이나 해석을 개진함으로써 이성에 반대하는 윤리관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발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표현의 내용과 수위, 발언의 동기와 경위, 횡수, 전체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교수를 해임에 이르게 할 만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총학생회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2차 피해의 유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이 교수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성희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므로 이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리인 조영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 교수가 ‘인간론과 종말론’ 수업 때 동성 성행위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창조질서에 맞는 윤리관을 가르치면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가 총신대의 해임결정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판결”이라고 말했다.

### 고신총회 ‘팬데믹 속 목회방향’ 집중논의

#### 이현철 고신대 교수 고신총회 현의안 분석

대부분 기독교 교단들이 9월 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이 총회 때 다뤄질 현의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현의안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철 고신대 교수는 지난 27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미래교회포럼 3차 포럼에서 고신총회 현의안 분석을 중심으로 고신총회가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오는 9월 있을 제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81건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안건은 12개(14.81%)였다.

이 교수는 “총회에 상정되는 의제

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특정 주제 및 그와 관련된 이슈가 15%에 육박하는 건 그 자체로서 노회와 교회들의 관심이 지대함을 의미한다”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을 매우 엄중하고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교수는 코로나19 상황 속 전국 교회가 느끼는 답답함이 현의안에 담겨 표출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위원회 조직 및 구성’ 미래기획단 구성 및 신앙생활백서 발행 등을 예로 들며 “고신 산하 노회 및 교회들이 기존 목회현장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위원회 혹은 제도에 기초한 체계적인 방향성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장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를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며 “그만큼 현장교회는 안정감 있는, 명확한 목회적 방향과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인식이 교회 현장 사역에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경기북부노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과 위기에서 정부 및 방역 당국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추구’ 안건, 부산동부노회는 ‘한국교회의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 및 전도전략 연구 요청’ 안건을 냈다.

### 백석, 차기 총회장에 장종현 총회장 연임 추천

#### 후보추천위 만장일치로... 사무총장에 김종명·임인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이 차기 총회장에 장종현 총회장을 추천했다. 사무총장 후보에는 김종명 현 사무총장과 임인기 파주 이룸대운교회 목사를 추천했다.

양병희 전 총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교단의 성장과 성숙, 내부 결속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특히 2023년 총회 설립 45주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장 총회장이 총회장직을 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후보추천위 만장일치로 44회기 총회장 후보에 장 총회장이 확정됐다.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지난해 제2부총회장으로 활동했던 김진범 서울 하늘문교회 목사가 추천됐다.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총회 회계로 활동했던 원형득 장로가 선정됐다.

3년 만에 치러지는 사무총장 선거에는 3명이 등록했으나 후보추

천위원회가 투표로 후보를 2명으로 압축했다. 김 목사는 제주 평안교회 담임목사와 엑스플로2018제주선교대회 준비위원장을 지내고 2018년 9월부터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임 목사는 예장백석 세계선교위원회 이사장과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추천된 후보는 다음 달 13일 총남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리는 제44회 정기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다. 총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하루만 진행하며, 총대 1041명 중 50%만 참석한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b>뉴욕세브란트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 아 예배: 오전 10:45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곽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 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 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East Meadow, NY 11357	<b>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684, www.fkcby.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b>리빙스턴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연: 오후 12:30 주일학교강연: 오후 1:30 수 요 전 영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b>베이사이드 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사역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b>사랑의동산교회</b>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b>어린양 개척 교회</b> 담임목사: 유승례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inistry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Tel: (845)848-2013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15분 주일학교 오후 1:15분 청년예배 오후 3:15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b>멕시코 현지인 교회</b>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 왜 교도소 문서선교여야 하나요? (9)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왜 교도소 죄수들을 돌봐야 하나?

교도소 재소자들을 함께 돕자고 교회의 협력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였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 일에 마음을 써야 하는 걸까? 나는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며 그 작은 공간에 갇혀서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 눈으로 봐야 했다. 코로나사태로 인한 지금의 시점은 그들에게 더욱 열악하기만 하다. 그들은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만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나도 역시 절망에 빠져 자살 충동을 느낄지 모른다. 그들은 사위를 하기 위한 한 시간 동안만 감방에서 잠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우울증이 깊은 재소자들은 그 잠깐의 시간에도 나오지를 못한다.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내가 살은 인생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문서선교의 책들은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주며 소망을 갖게 해준다. 책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들의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밝고 가벼워진다. 나는 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를 체험하고 감격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재소자들을 많이 보아

왔다. 영혼의 치유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그것이 내가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나는 많은 기적을 보아왔다. 한 젊은 여자 재소자가 감방 한쪽 구석에서 큰소리로 울었다. 영적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그녀를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무서운 마귀의 공격에서 완전히 해방

되었다. 한 남자 재소자가 감방에 혼자 있을 때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인도하자 마귀의 모든 공격이 즉시 멈췄다. 다음 날 그는 하나님의 그렇게도 빨리 도와주셨다고 감격해 했다. 그 후 그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마귀와 싸우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영적인 치유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소원한다. 만일 그들이 도움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기도를 통해 그들이 치유되도록 도울 수가 있다. 주님은 재소자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면 그들을 섬세하게 돌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교도소 사역에 부르셔서 당신의 사랑과

해주셨다.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책이 전해지게 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제까지 보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신다. 나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며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하고 하신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주님이 내게 500교회를 방문하여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부흥에 관하여 나눌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방문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웹사이트나 유튜브에 올라간 TPPM의 자료들, 강의, 그리고 줌 미팅으로 한 "내적치유 세미나" 등을 사용하고

들이 이란어로 번역이 되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읽혀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내적치유 가이드"는 몽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중이다. 몽골에 사역자들은 "내적치유 가이드" 번역본이 완성되면 줌으로 강의를 해줄 것을 내게 요청했다. 2019년에 내가 뉴욕에서 "내적치유 세미나"를 인도하고 난 후 참석자 중 한 분이 몽골에 그 책을 가지고 가서 강의를 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들은 "내적치유 가이드"를 몽골어로 번역하여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자 나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다. 나는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으로, 또 사역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

울려 드린다. TPPM은 2021년 도까지 440,000권을 교도소와 노숙자들에게 배포했다. 나는 TPPM이 백만권의 책을 배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제까지 재소자들과 TPPM을 위해서 헌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전한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를 전하며

TPPM 사역을 하며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봉사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은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 전심 전력을 다했다. 그분들의 수고로 우리는 많은 책을 출판하여 재소자들과 노숙자들을 도울 수가 있었다. 그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TPPM을 통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훌륭한 봉사자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왜 TPPM이어야 하는가? 왜 책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필이면 왜 재소자들을 도와야 하는가? 왜 재소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어야 하나? 왜 그들을 나의 가족들보다 더 돌봐야 하나? 그것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yonghui.mcdonald@gmail.com  
(끝)

### 백만권을 재소자에게 배부하기 위해 기도 중 왜 TPPM이어야...?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이다

능력, 그리고 용서를 전하게 하신다.

"너의 꿈은 너무 작단다"

하나님은 늘 나의 꿈이 너무 작으니 꿈을 크게 가지라고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TPPM(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책들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힌두어, 이란어(페르시아어), 월남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 될 수 있도록 인도

계신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섬기고 있는 체플린이 나의 "내적치유 가이드" 책을 교도소 자원 봉사자들을 훈련하는데 사용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필리핀에 연합감리교회 감독(bishop)이 그곳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내적치유 가이드"를 영적치유를 위한 자료로 홍보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내적치유 가이드"가 스페인어로 번역되고, 여러 권의 TPPM책

다. 만일 주님이 내게 "내적치유 가이드"를 쓰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쓰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에 TPPM 책들은 재소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하지만 주님께서서 그 용도를 넓혀서 사역자들을 돕는 데에도 사용하고 계시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교도소 사역에 불러 주신 것과 상처 받은 사람들을 위해 책을 쓰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 원 스토리 12강 / 야곱(3)(창 27-35장)

#### 야곱

이미 어머니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별되었던 야곱이 었지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받고 싶었던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되어 베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삶에서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기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잊고 지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아버지의 축복으로 행동해야 할 삶이 점점 더 사상이 막히는 환경이 되자 마침내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아니 도망을 칩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을 고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창 12:7, 13:14-17, 15:7) 이삭에게도(창26:3-5) 그리고 야곱에게도(창28:4,13, 35:12) 반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창 31:3).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 하시지는 계속되는 'One Story', '여호수아서 편'에서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불러 장인인 라반 때문에 힘들었던

자신의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불평합니다(창31:4-13).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베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동의를 얻어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창31:14-20).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그를 이끌고 나오시는 모양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경이 안팎으로 어려워지자 라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그의 마음에는 꼭 '베엘로 가자'는 아닙니다.

#### 베엘로 돌아오는 길

자의 반 타의 반 이제 베엘로 돌아오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으로 순복하고 있지 않기에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엘로 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몇개 있습니다. 뒤에서 쫓아올 '라반'과 앞에서 위협할 '에서'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준비해두신 '세겜 성'까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그 길을 지키실 것입니다(창 32:1,2).

#### 라반의 추격

이미 라반의 아들들과의 불편함이 있었던 야곱은(창 31:1)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듯이 다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피해 도망을 칩니다. 이번에는 혼자라 아니라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에 딸이 1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도망

55). 하나님이 지키시면 세상의 왕도(삼상23:14) 사단도(욥1:6-12, 2:1-6)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베엘로 돌아가는 여정의 작은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 에서를 만날 준비

야곱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잔포'도 '속임수'도 '머리 회전'도 그리고 세상

32:7,8). 셋째, 이젠 그동안 찾지도 않던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창 32:9-12). 한 마디로 하면 '하나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저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면 은혜 주신다고 했으니, 물론 지금까지 주신 것도 많지만, 제 간절한 기도는 형 에서의 손에서 절 살려주세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게,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했잖아요'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성의 없고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인지 모릅시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서도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 예물을 챙깁니다. 적지도 않은 예물, 야곱이 지난 20년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야곱이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만큼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천사로 대변되는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힘으로 누르시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물론 마침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시겠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철없는 자녀들이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신체의 가장 중심을 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야곱이 불평하고 있던 야곱의 '자기중심'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자신에게 축복해줄 것을 원하는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내가 누구냐'(창27:19)라고 물었을 때 그 축복에 목숨을 걸어 '에서입니다'라고 했던 그 야곱이 지금은 '야곱입니다'라고 합니다. 아직 나그네 인생으로 갈 길이 멀지만 여기서 한 단계 자신이 부인되는 것입니다(창32:13-27).

천사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이겼다는 것입니다. 형통을 원했던 4명의 아내와 배다른 12명의 자녀를 원하지 않았고 장인인 라반과 처남들과의 불화를 원하지 않았으며 라반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나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는 에서 앞에 자신이 꺾어버린 절망의 상태인 야곱을 성경은 '승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이 인식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에서의 축복이 아닌 야곱, 자신의 이름으로 천사의 축복을 받습니다(창 32:29).

hfamilyfa@gmail.com

'야곱'입니다

을 살아내는 '처세술'도 결국 우리의 삶의 '단면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향이자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 베엘로 가까이 오며 형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첫째, 형 에서의 동정을 살필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들의 입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는 사랑 같은 말을 넣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온다는 절망에 가까운 소식이었습니다(창32:3-6). 둘째, 에서가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짐승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가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창

#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 월 기다림(창16:1-16)찬93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 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그 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약1-2 장).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함은 '말조심(행3:1~12)', '지식을 넘어 지혜로운 행함(약3:13-18)', '육신 제어 및 비방을 삼가함(약4장)' 등으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 믿음의 증상'은 '인내(약5:7-11)'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당장은 시원한 해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길 믿고 기다립시다.

## 화 마음에 할례를 받으시라(창17:9-14)찬257장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 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남성생식기의 겹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 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몸에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종교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받지 않지만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롬 2:28-29).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도 할례 받은 자의 표식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표시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표시 나는 성도'가 됩니다.

## 수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창18:16-33)찬321장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 땅에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창 18:20).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 입니다(창18:32; 창19:23-29). 비극은 '세상 에 죄악과 악인들이 넘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슬픈 비극은 '거룩하게 구별된 의인 10명

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심판을 받은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였 기 때문(창6:1-2)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성도들이 거룩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여 거룩을 살아냅니다.

## 목 농담으로 여겼더니(창19:12-22)찬546장

'농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차하 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웃다, 비웃다'라 는 뜻입니다. 웃는 사위들은 웃을 통해서 들 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사위들의 태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 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 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 게 여길 때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중하 게 받으십시오.

## 금 신실하신 하나님(창21:1-7)찬393장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됩 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자그마치 100 세나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 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그 아이가 태어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 께로부터 아들을 낳은 후 비로소 웃으며 기뻐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25년 전이었습니

다. 25년 동안 사라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멈췄고 그의 삶에서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러 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 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우 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 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 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시다.

## 토 여호와 이레는...(창22:1-19)찬407장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와 산에서 (대속 의 제물이)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그 대속 의 제물이 대적(사단마귀)의 성문을 차지하 고 그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 의 십자가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삭은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 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 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셨 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을 삽시다.

#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5)

## 위기의 순간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세요

다니엘 6장의 이야기를 계속해본다. 인생의 최 대 위기의 순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고 지난 호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우리가 거둔 신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바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평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진실 되고 믿음 있고 거둔 신양인 것처럼 행동한다. 반석 위의 집에 대한 주님의 예화는 바로 이를 의미한다. 평소에는 두 집에 똑같이 아름답다. 정원이 있고, 집안에 꽃향기가 은은하고, 즐겁게 담소하는 정원의 모습은 두 집에 똑같이 보인다. 그러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는 위기의 순간 두 집의 운명은 기초공사에 따라 확연히 다르게 된다. 한 집은 무너지는 반면, 다른 집은 거뜰하게 버틴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토대, 기초의 차이이다. 반석위에 집을 지었는가 아니면 모래위에 집 을 지었는가 하는 차이이다. 이미 하나님은 느브갓네살이 꿈(단2장)을 통해 이를 설명해 주셨다. 거대한 신상, 휘황찬란하게 금으로 만든 머리 부분, 은으로 만든 가슴 부분, 배와 넓적다리 는 동으로 종아리는 철로 웅장하게 만들어진 신상,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신상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바로 하나의 돌이 그 신상의 발을 치

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 까? 세 가지 이유 가 있다.

첫째, 근심은 스스로를 무신론 자로 만들고, 아 비 없는 고아로 선포하는 것과 같다. 근심은 하나님을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게 만든다. 곧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며 그분이 자녀를 사랑 하는 것을 거부함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6,000여 가지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쓰여져 있다. 그런데 근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 아닌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를 가르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빌 4:19)." 빌립보서 4:19은 바로 미국 크리스천들이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대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예배와 찬양 토대가 튼튼하면 위기의 순간에 절망 안해

니 그것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다니엘은 고백한다( 단2:33-34). 바로 기초(신상의 발 부분)가 튼튼하 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필자는 바로 그것을 영적 습관(평소 하던 대로, 단6:10)이라고 지난 호에서 언급하였다. 하루에 세 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적인 습 관을 80평생 쌓아왔다. 그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 에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영적 비결이 되어왔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기업가들, 운동선수들,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돈과 명예가 인생의 행복은 주지는 못한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토대 가 튼튼하지 못한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되어 많이 안타깝다. 바로 토대가 튼튼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위기의 순간 근심하지 않고 찬송한다는 사실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자 굴속에 다니엘을 던져 넣 으라는 조서에 어인을 찍은 다리오왕은 정작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던져진 이후부터 근심과 걱정 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니엘 6:18절을 읽어보라. "왕이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기악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나라..." 사자 굴속에 있었던 평안했던 다니엘 과 안절부절 못하고 뜬눈으로 잠을 세운 왕을 비교해보라. 결국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 6장에서 배울 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은 가르침을 마태복음 6:31-34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다. 둘째로 근심은 비이성적인 것이다. 만약에 근심 을 함으로 상황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근심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근심은 필요 없는 걱정, 무모한 시간낭비라는 것 아 니겠는가? 그러기에 근심하지 말자. 지구상 피조 물 중에 유일하게 근심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 이다. 그렇다. 바로 근심은 죄와 함께 우리 속에 침 잠하는 불신앙의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근심은 우리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심은 마치 우리가 안락의자에 앉아 열심히 움직이고 뭔가 해보려고 애를 부려 보지만 결국 아무 진전 없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마는 무용한 시도에 불과하다. 주님의 훈계를 들어보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마6:27). 결국 근심과 염려 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행하는(마6:30) 불신앙 의 표현이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 그는 근심과 걱정이 그의 처지를 한 치라도 변화시켜줄 수 없 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사자 굴속에서 그는 찬송 하고 예배를 드렸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사자 들의 입을 막으셨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다. 다니엘 6:23에 그 비결을 이렇게 기록한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예 배와 찬양이다. hlee0414@gmail.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증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선교부흥과 영성 회복을 위한

대뉴욕지구

2021  
할렐루야  
로주야

# 부흥회 대회

Hallelujah Greater New York Evangelization Conference

강사

양창근 선교사

## 9.11(토)-12(주일)

### 토요일 7:30PM, 주일 5:00PM

### 장소: 뉴욕장로교회 (김학진 목사 시무)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 대회장

문석호 목사

####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

#### 부대회장

김희복 목사

백달영 장로

이춘범 장로

#### 목회자 세미나

- 일시: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뉴욕대한교회 (김전 목사 시무)  
3501 150th Pl,  
Flushing, NY 11354

#### 차량 운행 안내

- 시 간 : 집회 시작 1시간 전, 30분 전 출발
- 출발장소 : 한양마트, 공영주차장, 베이사이드 삼원각

\*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가운데 대회가 진행됩니다.

• YouTube 온라인 생방송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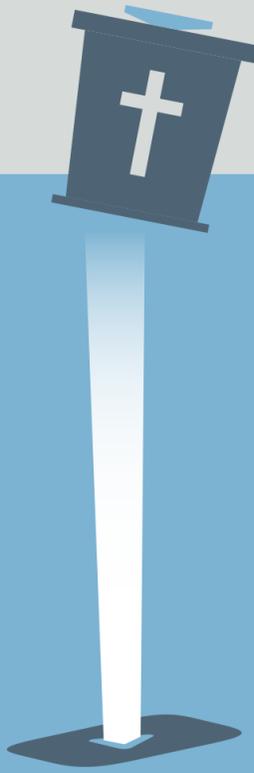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st Ave. Little Neck, NY 11362 | Tel. 718-279-1414 Fax. 718-279-5838  
Email: nyckcg@gmail.com, www.nyckcg.org

# 설교의 영광을 회복하라

세상의 위기는 팬데믹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도 팬데믹이 아닙니다.  
 강단의 위기가 진짜 위기입니다.  
 이 시대는 설교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이 시대는 설교의 영광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눅10:16a)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설교의 영광을 회복할 설교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34년 동안 흔들림 없이 개혁주의 목회자를 배출해 온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서 설교학을 전공으로 하는  
 Th.M 과정을 개설합니다.  
 오셔서 설교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공개강좌: 2021년 9월 8일(수) 오전 10:00-오후 3:00  
 (점심과 선물 제공)



류응렬 목사

### 2021년 가을학기 안내

일시: 2021년 9월 8일(수) - 11월 29일(월)  
 장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퀸즈장로교회/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과목: [설교의 본질, 디자인과 소통] 류응렬 목사, 김성국 목사, 장성철 목사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1(해석)] 이윤석 목사  
 [강해 설교학] 김바나바 목사

자격: M.Div 졸업자  
 과정: 2년 10과목 (총 30학점 / 6학점은 졸업 논문 또는 특별수업)  
 모든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합니다(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음)

문의: 학감)정기태 목사 917-733-7387, 신학교 사무실: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